



지난 19일부터 2일간 열린 경상대학 축제 '씨울제'에서 학생들이 군무를 선보이고 있다.

대학 축제, 젊음의 열기가 타오른다

단과대학과 학과가 주최하는 축제, 학술제가 캠퍼스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인문대학은 지난 6일 중어중문학과와 '홍향제'를 시작으로 축제의 막이 올랐다. 영화 '건축학개론'을 각색하여 연극을 선보였다. 이어 13일 일어일본과의 '파랑제'를 비롯해 19일부터 이틀간 독일학과의 'I.F.D.K FEST'에서는 '유럽영화제',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등의 행사가 열렸다. 국어국문학과는 25일 '아라미문학'을 개최해 '시화전', '마당극', '공연'이 펼쳐졌다. 경상대학의 '씨울제'는 지난 19일부터 2일간 경상대학 일원에서 열렸

인문대·경상대 등 축제 열여… 전공과 관련된 학술제도 눈길
건축학부·산업디자인학부 등의 졸업전시회도 성황리에 열려

다. '매운 짬뽕 빨리 먹기, 내가 바로 미스경대, 너도 가수다2' 등의 학생 참여 행사들이 진행됐다. '너도 가수다2'와 각 학과별 장기자랑 등의 행사는 경상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모았다. 또 사범대학 축제인 '사목제'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단과대 앞 터에서 열렸다. 한편 전공 공부를 심화하기 위한 학술제들도 주목을 끌었다. 26일부터 이틀간 정치외교학과는

국제교류회관에서 제5회 모의UN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모의UN회의는 '탄소 배출 규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주제로 토론이 펼쳐진다. 또한 수의과대학에서는 지난 22일 '반려동물한마당' 행사가 오후광장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물운동회, 수의학 체험, 반려동물 캐리커처' 등의 행사가 열렸다. 언론홍보학과는 지난 20일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제11회 'Key frame 영상제'를 열었다. 언론홍보

학과 학생들이 두 달여간 제작한 다큐멘터리, 미디어 비평, 드라마, 광고 영상물이 상영됐다. 또한 졸업작품전시회를 개최하는 학과들도 있다. 건축학부는 지난 21일부터 3일간 제9회 졸업작품전시회를 열었다. 의류학과는 지난 8일 개교 60주년 기념 졸업 작품 패션쇼를 열어 졸업생들의 다채로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더불어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디자인전공 학생들도 'Culture & Formative'를 주제로 제22회 졸업전시회를 가졌다.

성지아 기자

송석언 교수 제6대 교수회장 당선

1차투표서 58.5% 득표… “합리적인 총장 임용제 마련할 것”

제6대 교수회장에 송석언(법학과·사진) 교수가 당선됐다. 지난 25일 치러진 제6대 교수회장 선거에서 송석언 교수는 투표수 563표 중 264표(58.8%)를 획득해, 108표(24%)를 획득한 이상봉(회계학과) 교수를 156표차로 제치고 제6대 교수회장에 당선됐다. 또 양길현 교수는 77표를 획득, 17.2%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번 제6대 교수회장 선거에서 563명 중 451명이 투표해 80.1%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또 무효표는 총 2표로 집계됐다.

송석언 신임 교수회장은 소견서를 통해 “교과부의 총장공모제로 인한 낙하산 인사 등 변형된 총장임명제를 절대로 반강할 수 없다”며 “교수회가 중심이 되어 대학 실정에 맞고, 적용가능한 공모에 의한 총장임용 후보자 선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지냈다. 이에 앞서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 법무서비스 인력양성 사업단장을 역임했다. 또 2006년부터 제주도 인사위원회 위원,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석언 교수는 지난 1995년 3월 제주대에 부임했다. 송석언 교수의 임기는 오는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말까지 2년이다.

한 외국인 교수의 제주대 사랑

故 헌트 교수 1000달러 기부… “영어영문학과 학생들 위해 쓰라” 유언

지금은 고인이 된 한 원어민 교수가 제주대학교에 1000달러를 기부해 그의 대학사랑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지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4년간 영어영문학과 초빙교수로 재직했던 패트리샤 헌트(Patricia E.

Hunt) 교수는 16년 동안 뇌종양으로 투병생활을 겪다가 지난 2월 27일 미국 달라스 자택에서 별세했다.

헌트 교수는 임종 전 문상객들의 부조금 전체를 “제주대학교 영어영문과 학생들의 영어교육 관련 여행경비로 쓰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겼고, 이에 헌트 교수의 부모님이 추도식에서 모자란 금액(약 1000달러)을 지난 9월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에 기부했다.

고 헌트 교수는 1992년 영문과를

떠난 후 대구의 한 대학교에서 재직하던 중 1996년 쓰러져 24시간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 이후 본인의 미래에 대한 친필 유서를 작성했는데, 4개항 중 4번째가 “유해의 반은 뉴멕시코 주의 산타페에 뿌려 주고, 유해의 반은 제주도 마라도에 뿌려 달라”는 것이었다.

헌트 교수가 평생에 얼마나 제주도를, 그리고 제주대학교를 사랑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기초교육원, 27일 학습전략 워크숍

포트폴리오 워크숍은 매주 수요일 진행

기초교육원(원장 현승환)은 오는 27일 2012년 2학기 학습전략워크숍의 일환으로 '제1차 공부비법 워크숍:리포트 작성'을 교양강의동 강의실에서 연다.

고 있는 학습자들의 취약한 부분을 짚고 학습 문제점을 분석해 자기주도적인 학습습관 및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 참가는 26일까지 학부제 학생 1~2학년 20명을 선발하며, 편입

생 및 학사경고자를 우선적으로 뽑는다.

이날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주제별 학습전략 목표설정 및 시간관리 △리포트작성 요령개! △전공서적 읽기와 노트필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학습스타일별 외국어 학습 발표 수업에서 나의 전략 ▶각 주제별 학습전략 강의 및 팀별활동 등이 열린다.

한편 Navi(내 비전)를 표현해보

자) 포트폴리오 워크숍이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1·2학년 학생 20명, 3·4학년 학생 20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신의 대학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신의 대학생활을 설계하고자 하는데서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에 호응정(기초교육원) 연구원 등 총 5명의 강사가 참여한다.

궁금한 사항은 기초교육원(전화 064-754-2056)에 문의하면 된다.

신축 도서관 위치 골프아카데미 서쪽 확정

산림조합과 토지 맞교환… 25일 교환 협약 체결

새로 신축될 중앙도서관은 제주대 골프아카데미 서쪽 부지가 될 전망이다. 학교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허향진 총장과 장일환(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은 산림조합 토지와 국유토지 교환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중앙도서관 신축부지를 마련

하기 위한 협약에서 제주대는 산림조합 소유의 골프아카데미 서쪽에 위치한 제주시 아라1동 6-18번지 일부 토지를 넘겨 받고 아라캠퍼스 일대 토지 일부와 교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교환예정지에 대한 성토공사 임할 공과 및 공사계약 체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바로잡습니다

19일자(876호) 1면 '업무 인수인계 제대로 안돼 행정처리 혼란' 기사 중 강승원(총무과) 실무관 인더뷰 내용이 기자의 착오로 잘못 게재돼 바로 잡습니다.

기사에서 "인사이동 후 직원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게끔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강 실무관은 이같은 말을 기자에게 한 적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강승원 실무관에게 사과드립니다.

제주서

풍요로운

청정제주 그대로의 맛을 드립니다
제주산 흑돼지로만 만들었습니다
인공조미료, 방부제, 중량제, 아질산나트륨을
넣지 않은 웰빙제품입니다

판매처 : 제주햄 상설 판매장(제주대 중소기업지원센터 2층)
문의 745-7013, 702-0124

제주햄 명절선물세트 출시!

제주햄 명절선물세트 제주대 교직원 특별할인가 판매

명품흑돈제주햄 1호	62,000	-----	할인가 33,000
명품흑돈제주햄 2호	82,000	-----	할인가 41,000

제주흑돼지 캔햄 선물세트

제주흑돼지 소시지 선물세트

제주햄은 제주대학교와 제주돈육수출센터가 공동설립한 회사입니다

사설

새로운 교수회장에게 바란다

9월 25일 새로운 교수회장이 선출됐다. 총장직선제 수용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대학구성원들 사이의 이견으로 인한 교수회장의 사퇴와 보궐선거라는 우여곡절을 겪은 후 치러지는 교수회장 선거인만큼 대학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한국의 대학은 위기에 처해 있다. 한편으로 모든 대학들은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목하에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갈수록 학문연구 풍토는 상업적 논리에 의해 뒤틀려져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등교육 성과를 취업률을 비롯한 몇몇 지표로 판단함으로써 교수와 학생사이의 수준 높은 학문적 토론은 사라져 가고 있다. 대학이 저마다 갖고 있는 다양성과 특성도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양적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성과위주의 대학평가는 대학구성원들 모두의 정체성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약육강식의 이윤논리가 대학을 침식하면서 대학 교수들의 자율성과 자긍심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성과급연봉제'와 '총장직선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교수들의 느끼는 좌절감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하지만 교수회의로 대표되는 교수집단의 자존감의 표현은 종종 집단 '이기주의'로 오해될 수도 있다. 한국 대학의 미래, 제주대학교의 미래, 그리고 학생들과 학문연구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교수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고 이에 따라 쉽게 원칙을 포기

하는 집단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대학교수에게 바라는 것은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고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대학 안에서도 교수집단은 민주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기대된다. 한국의 교수들이 그러한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 반문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상실되어가고 있는 교수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선출될 교수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주의적 대학개혁의 틀 안에서 협상하기 보다는 그 자체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소수의 교수회의 집행부가 아니라 교수 전체, 나아가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 전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명실상부한 이들 모두의 대표자로서 인정받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대학은 취업학원이 아니며,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수동적 기구가 아니어야 한다. 대학은 다양한 의견의 공존하고 그것을 민주적 방식으로 수렴할 수 있는 공론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주대학교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에 제주사회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 특히 비판적 목소리가 드러나고 지방행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공기(公器)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교수회장이 이러한 방향전환을 시작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해 본다.

재일제주인센터에 거는 기대

지난 9월 14일,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이하 센터)가 공식적으로 개소식을 했다. 상당한 재원을 후원받아 완공된 시설일 뿐만 아니라, 향우 센터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할 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주대학교 박물관과 함께 제주인센터가 들어선 건물 자체가 학교의 경관을 바꾸었음은 세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외형적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센터의 사회적 사명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주는 일본과 중요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점에서, 센터에 거는 기대를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센터는 좁게는 재일 제주인과 그들의 후세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넓은 시각에서는 제주와 일본이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함의적으로 일구어가는 방안을 제안하고 실천하는 장이 될 수 있다. 작금에 벌어진 불편한 한-일 관계의 격랑 속에서 제주인 센터 나름의 소명이 있으리라고 본다. 갈등의 당사자는 누그러진 의제와 공간을 갈구한다는 점에서, 센터의 조정자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둘째, 재일 제주인 2세대의 한국어 및 문화교육 나아가 제주대학교 수학(修學)을 위한 실질적인 창구가 되어야 한다. 온갖 고난을 극복하며 일본에 터를 잡은 1세대의 희생 속에서 성장한 2세대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제주와 한국을 대할 것인가? 2세대를 위

한 청사진은 과거사의 정리 못지않게 중요한 미래지향적인 과제이다. 특히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언어 및 문화의 교육이 절실하다.

셋째, 센터의 설립에서 주목받는 점은 '지역학'(地域學: Area Studies) 연구기관이라는 점에도 있다. 지역학의 핵심은 질곡의 역사를 살아온 당사자들이 작고하면 되찾을 길 없는 과거를 기억하여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전승하는 데 있다. 이를테면 사료와 자료의 단순한 축적을 넘어서 재일 제주인의 이야기를 수집, 분류, 평가하고 연구와 교육 및 문화 사업을 위해 해석하고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오키나와가 '류큐왕국'(琉球王國)과 전후 현대사를 자신들의 입으로 재구성한 '향토지'(郷土誌)를 500여 종이나 발간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무릇 하나의 '기반시설'(Infra-Structure)이 세워진다는 것은 물리적 하드웨어의 설치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시설은 소프트웨어와 조화롭게 상승작용을 이룰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사회문화적 기관'(Socio-Cultural Institution)으로 자리 잡는다. 지난 주 개관한 <제주대학교 재일 제주인 센터>가 지역학 연구와 교류의 모범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옛 제주대병원 부지 창업보육센터 건립 '이상무'

옛 병원부지 용도폐기대상 대학 본부서 적극 이익제기 기재부, 이익신청 받아들여

조달청이 옛 제주대 병원 부지를 용도폐기 처리해 당초 계획상의 창업보육센터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 이후 폐기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건립에 파란불이 켜졌다.

대학 본부는 2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유허행정재산 용도폐지 대상으로 잠정 분류됐던 옛 제주대학교병원 부지 일부가 용도폐기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대학교 병원의 용도폐지 대상 제외는 대학 본부가 최근 조달청의 용도폐기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에 이익제기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기재부는 지

난 17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재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본부에서는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옛 제주대학교 병원을 리모델링해 창업보육센터로 건립하려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아라동 신축 부지로 이전된 지 3년이 되도록 방치되고 있는 옛 제주대학교 병원 내 신관과 구관 일부를 다음달부터 리모델링해 창업보육센터로 만들고, 일부는 민간 기업에 임대한 후 대형음식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 지원 사업으로부터 받은 국비 15억원과 제주대와 제주도 각각 10억원 등 총 35억원을 투입된다.

현재 창업보육센터 입주를 위한 건물 대수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가 완공되면 창업보육센터를 입주시켜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해 대학과 지역산업의 공동발전은 물론



기획재정부로는 최근 용도폐기 대상에서 옛 제주대학교 병원 부지를 제외했다. 사진은 창업보육센터로 변신하게 될 옛 제주대학교 병원.

론 주변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학 측에서는 올해말까지 창업보육센터 등 옛 제주대학교 부지

활용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창업보육센터가 건립되면 도내 64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지 기자

제주대 국정감사 내달 15일 전북대서

올해 예산 집행 등에 대해 감사 16일 전북대와 업무협약도 진행

2012년 제주대 국정감사가 오는 15일 오후 3시부터 전북대학교 진수당 1층 가인홀에서 열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주대는 국회 교육과학기술부위원회 감사2만(반

장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국정감사에는 황우여(새누리당) 의원, 이상민(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질의에 나선다.

이날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2012년 예산 집행사항, 2012년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대학 운영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감사를 받는다. .

이날 국정감사에 허향진 총장, 최태희 부총장, 대학본부 처장급 인사 등 총 30명이 참석한다.

이에 앞서 제주대는 다음달 8일까지 주요업무보고서 등 각종 국정감사 자료를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정감사 다음날인 16일에는 전북대와 업무협약도 함께 진행한다.

제33회 영어말하기대회 28일 자연대 세미나실서

‘제33회 영어말하기 대회’가 오는 28일 오후 4시 자연과학대학 1호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영어말하기대회는 언론미디어센터(주관 김동윤) 영자신문이 주최하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실용적인 영어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최된다.

지난 21일 참가자 모집을 마감한 결과 16명이 지원했으며, 이날 경연에서 대회 시작 60분 전에 주제를 무작위 선택하고 3~4분 동안 영어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상은 대상 1명에게 상금 50만원, 우수상 2명 상금 각 25만원, 장려상 3명에게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한용재(법학 4) 영자신문 편집국장은 “올해부터 재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참가 자격을 학부 재학생으로 한정했다”면서 “참가자 말고도 일반 학생들도 많이 대회장에 와서 응원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향진	편집인·주관 김동윤	편집국장 김명지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ac.kr		

제32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제58주년을 맞이하여, 제32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공모합니다.

-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 응모분야 :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 유의사항 : A4용지 10~30매 내외(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논문 출력물과 논문 파일 CD로 동시 제출. 제출된 원고는 반환 안 됨.
- 접수마감일시 : 2012년 12월 10일(월) 18:00까지
- 시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5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30만원
- 접수장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754-2278·취업전략본부 건물 3층)
- 발표 : 제주대신문 2013년 신년특집호(2013년 1월 1일 발행 예정)

언론미디어센터 제주대신문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주말교육가능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학원셔틀버스 운행

↑시정

←제주여고

↓제주대

→아라동

학원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도 이제...
외교원

TOEIC

새롭게 단장한 토익특별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1
최고의 토익전문 강사진

02
사설학원 대비 훨씬 저렴한 수강료

03
최신 TOEIC시장에 발 맞춘 신경향 수업

04
내 스케줄에 딱 맞춰서 들을 수 있는 수업시간

05
수강생을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

접수기간 : 8월 24일 ~ 9월 26일(9월 24일 개강)

접수방법 : 외국어교육원 홈페이지 (http://fli.jeju.ac.kr)

문의 : 외국어교육원 2층 토익특별반 (064-751-2291, 754-2347)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외국어교육원 토익특별반

Foreign Language Institute

☎(064)754-2347, 751-2291, http://fli.jeju.ac.kr

‘난타’ 공연 대학 홍보의 새바람 기대

외국인 관광객 상대로 홍보… 수익창출 기회도



‘난타’가 아라뮤즈홀에서 상설 공연될 예정이다.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학 홍보가 가능해 유학생 유치에도 긍정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타악 퍼포먼스 ‘난타’가 우리 대학 아라뮤즈홀에서 본격적인 상설 공연을 기획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한류열풍에 빠진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학 홍보가 가능해 유학생 유치에도 긍정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학교와 난타 제작사인 제주대는 아라뮤즈홀의 난타

공연장 이용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 대학을 홍보하고, 대학 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난타와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로 학생 취업을 유도하고, 전국 4곳에 있는 난타 전용극장에 우리 대학 홍보물을 비치하며, 대학홍보 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여름방학기간 비상설 난타 공연이 26일간 아라뮤즈홀에서 열려 대학홍보와 함께 1300만원의 대관료 수익을 올렸다.

한편 난타는 2008년 4월 18일 제주에 입성하여 제주영상위원회 건물 내에 상설공연장을 마련했다. 난타는 중국과 동남아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어 관광객 유치에 한몫하고 있다.

난타 공연은 오는 12월 초순 1

주일에 걸쳐 오후 3시, 5시, 8시에 공연된다. 내년 여름방학에는 7월 15일부터 한달간 공연이 예정돼 있다.

관람객이 2009년 14만 명(공연 481회)에서 2010년 17만3000여 명(공연 621회)으로 늘었다. 지난 해에는 중국, 대만, 일본 등 외국

인 관람객이 83%였다.

STS, 성인 위한 과학문화 프로그램 개최

오는 12일 서귀포 과학관서
물·바람 등 소재로도 열 계획

성인들을 위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이 오는 12일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에서 과학기술사회연구센터(센터장 박남제)의 주최로 열린다.

‘힐링 사이언스 추억하라! 탐구생활: 과학은 삼다(三多)-별을 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국내 최초로 별자리 여행 안내서인 ‘재미있는 별자리 여행’을 펴낸 ‘생활천문학자’인 이태형씨가 함께 한다. 또 한국인 최초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오늘의 천체사진’에 이름을 올린 대한민국 대표 천

체사진가인 권오철씨가 초청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이 실생활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참여자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느낄 수 있는 STS(사회 속에서의 과학기술)적인 것이 특징이다.

신청은 STS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10일까지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천체사진촬영을 위한 카메라 등은 개별 지참해야 한다. 문의는 STS연구센터 (전화 064-754-4939)로 가능하다.

센터는 향후 ‘바람-태풍과 풍력발전’ 등 지역사회의 특성과 그와 관련한 과학문화적 주제를 가진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한별 기자

제주식품학회 심포지엄
‘제주식품산업 글로벌화 전략’

제주식품산업학회(회장 임상빈)가 ‘제주식품산업의 글로벌화 전략’을 주제로 21일 국제교류회관에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해 최지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중앙정부의 사업에 제주 농산물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동환(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소비자 욕구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제품개발과 마케팅전략 수립이 글로벌 식품생산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훈희 기자

여자육상부 전국 대회서 11연패 기록

메달 8개로 종합우승 차지
한국체대 19점차로 따돌려
선수들의 우승 향한 열정

제주대 여자육상부가 ‘전국대회 11연패’라는 쾌거를 세웠다.

여자육상부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경상북도 영주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66회 전국대학대학육상경기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 등 총 8개의 메달을 차지해 종합점수 63점으로 2위 한국체대(42점)을 여유롭게 따돌리고 여자대학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여자육상부는 지난 2002년 제56회 대회 이후 한국체대 등 다른 대학의 도전을 뿌리치고 여자대학부 부문 최고 자리를 수성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체대를 비롯, 서울대, 한양대, 성균관대, 경북대 등 전국 남자대학부 27개, 여자대학부 25개 대학에서 모두 305명의 선수가 참가, 24개 부문에서 기량을 겨뤘다.

이수정(체육학부 2) 선수는 포환 던지기에서 14.38m의 기록으로 종전 14.36m의 제주도 신기록을 깨뜨려 1위를 차지했다. 또 오유진(3)·윤빛나(2)·이진아(1)·남초롬(1) 1600m 계주조는 4분 05초 39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첫 번째로 통과했다. 이 외에도 이기쁨 선수가 400m 허들에서 1분09초92의 성적으로, 이희연 선수가 세단뛰기에서 11m38의 기록으로, 7종 경기에서 김지수 선수가 2769점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경상북도 영주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66회 전국대학대학육상경기대회’에서 여자대학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사진 뒷줄부터 시계방향으로 강민정(2) 이은영(3) 배정미(3) 오유진(3) 김지수(2) 윤빛나(2) 이수정(2) 윤세진(2) 남초롬(1) 이희연(1) 이기쁨(1) 이진아(1)

의 성적으로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이창준(체육학부) 교수와 임관철 감독은 지도상을 받았다.

사실 이번 대회에서는 작년 대회에서 팀을 빛냈던 4학년 선수가 졸업함에 따라 우승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었다. 이창준 교수는 “100m 달리기를 비롯해 트랙 단거리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나 그 선수들이 졸업하는 바람에 걱정이 많았다”면서 “우려와 달리 전학년의 학생들이 후진을 발휘하면서 전국 대회 11연패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훈련을 하면서 선수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독들 중심으로 전국대회 연패기록을 이어나가자는 의지가 강했다”면

서 “다른 대학처럼 좋은 조건에서 운동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묵묵히 땀 흘려 지금의 성과를 일궈낸 학생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대 여자육상부의 쾌거를 더 빛나게 하는 것은 대학 입학 후에 보여준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이었다. 이창준 교수는 “사실 우리 대학 육상부에 들어온 학생들은 고등학교 선수 시절 ‘최고’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있었다”며 “1, 2위를 다투는 학생들은 한국체대 등 조건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데 비해 우리 대학 육상부 선수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입학한 후 계속 실력을 갈고 닦으며 노력해 왔다는 소식이 주위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다.

김명지 기자



사범대 독후감 컨테스트
고기랑 학생 등 3명 금상

사범대학(학장 송일상)이 지난달 27일 열린 ‘사범대학 독후감 Contest’를 시행해 지난 20일 시상식을 열었다.

고기랑(국어교육 4), 오진주(영어교육 4), 전가람(생물교육전공 3) 학생이 금상을 받았으며, 은상 4명, 동상 4명, 장려상 6명이 선정됐다.

농어촌 장학금 81명 수혜

제주대 학생 81명이 지난 24일 농어촌희망장학금을 받았다.

농어촌희망재단(이사장 김종현)은 이날 국제교류회관에서 제주대 학생 81명을 포함해 제주지역 4개 대학 102명에게 금년도 2학기분 장학금 2억원을 전달했다.

이중 제주대가 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한라대 12명, 제주관광대 5명, 제주국제대가 4명이다.

88올림픽 24주년 자전거 도일주 행사 열려

체육진흥센터(소장 이세형)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개교 60주년 기념·88서울올림픽 24주년 기념 봉송로 자전거 도일주’ 행사를 열고 있는 가운데 행사 첫날 참가자들이 아라캠퍼스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24일 오전 10시 제주대에서 출발, 애월읍 체육관, 대정고등학교, 화순안덕 계곡 등 서부지역을 돌아 서귀포시에 도착해 1박을 한다. 이튿날 서귀포시

를 출발해 해녀박물관, 제주 항일기념관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사라캠퍼스에서 행사를 마쳤다.

한편 이번 행사는 성화 봉송로 자전거 일주를 통해 우리 대학 개교 60년을 널리 알리고 도민과 함께 하는 대학임을 홍보하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

성지아 기자

제6회 전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은 한글날을 기념하여 제주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와 친선을 다지기 위해 대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2년 10월 9일(화) 오후 2시
- 장 소 :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

▶ 참가 신청

- 참가자격 : 제주도내 거주하는 외국인과 이주민
- 신청기간 : 2012년 9월 7일(금) ~ 9월 28일(금)
- 접수 장소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인문대학 1호관 2층 ☎ 754-2712)
- 시상 내용 대상 1명, 상금 : 30만원 상당 상품

금상 일반부 1명, 학생부 1명 상금 : 20만원 상당의 상품
은상 일반부 2명, 학생부 2명 상금 : 15만원 상당의 상품
동상 일반부 3명, 학생부 3명 상금 : 10만원 상당의 상품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사람들

전영준 사학과 교수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참여

전영준(사학과) 교수가 내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교과서 제작에 참여했다.

전 교수가 참여한 책은 교육출판업체인 ‘좋은책 신사고’에서 제작한 중학교 교과서.

이 책에는 제주4·3사건과 황해장성이 상세히 서술돼 있다. 삼별초 최후의 격전지로 항파두리가 언급된 적은 있지만 삼별초가 항몽을 위해 제주도 19개 지역 해안가에 쌓은 환해장성이 교과서에 소개가 된 것은 처음이다. 또한 이전 교과서에서 몇 줄로 짧막하게 소개되던 제주4·3사건이 4·3해원방사탑에서 위령제를 올리는 사진과 함께 비교적 상세히 소개됐다.

전 교수는 “책을 집필하면서 교생을 많이 했지만 학생들이 이 책으로 공부할 생각을 하니 뿌듯하다”며 “기회가 된다면 고등학교 교과서 집필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대호 의전원 교수 논문

Nature Neruoscience에 논문 실려

이대호 (내분비대사내과·사진) 교수가 최근 Nature 계열 대표적 저널 중의 하나인 Nature Neruoscience(2012년 인용지수 15.531)에 미국 하버드의대에서 연수 중에 수행한 연구결과를 공저자로 제출해 채택됐다.

이번 게재된 연구제목은 ‘Rho-kinase regulates energy balance by targeting hypothalamic leptin re-

ceptor signaling’. 주로 뇌의 시상하부에서 식욕조절과 에너지 대사에 Rho-kinase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내 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대호 교수는 진료에 있어서도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질병인 당뇨병에 대해 약물치료 뿐만 아니라 영양 치료 등 도내 당뇨병환자 치료를 위해 힘쓰고 있다.

오현지 동문, 홍콩 배티스트대 교수 부임

오현지(언론홍보학과 졸업·사진) 박사가 지난 9월 1일자로 홍콩 배티스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부 홍보광고학과 조교수로 부임했다.

1998년 언론홍보학과 개설 이후 졸업생 중에서 조교수로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티스트 대학은 홍콩 7개 국립종합대 중 하나이다.

2001년 제주대 언론홍보학과에 입학한 오 박사는 재학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았으며 평점 4.16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3년 만에 조기졸업했다.

2006년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미주리대학교에서 4년 간 지내며 석·박사 학위를 땀다. 지난해 싱가포르 난양대학교 박사 후 과정을 마쳤다.

주된 연구분야는 공공보건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대인론 PR, 기업의 위기관리PR, 공중의 건강지식증진을 위한 대중매체의 의료보도효과 등이다.



취업을 Job아라

② 대학평가에서 취업을 왜 중요한가?

대학재정 지원에 큰 영향... 대학서열화 조장 우려도

왜 대학을 평가하는데 취업을 지표로 사용하는가

취업률은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끼리 다르고 단과대학간에도 차이를 보인다. 전문대학은 취업을 하기 위해 다니는 학생들이 많다. 4년제 대학은 취업을 위해 재학하는 학생도 있지만 원하는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 다니는 학생들도 있다. 단과대학을 봐도 경상대학, 이공계 계열 학과는 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인문대학, 사범대학 등은 졸업에 맞춰 취업을 해야 하겠다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적다.

또 사립대와 달리 국립대는 취업률이 높지 않다. 특히 지역거점국립대는 다양한 학과를 개설하고 있으므로 취업률이 높을 수가 없다. 올해 지역거점국립대학 중 제일 높은 취업률을 보인 대학은 경북대로 55.6% 정도이다. 그런데 왜 모든 대학을 평가하는데 취업을 지표로 쓰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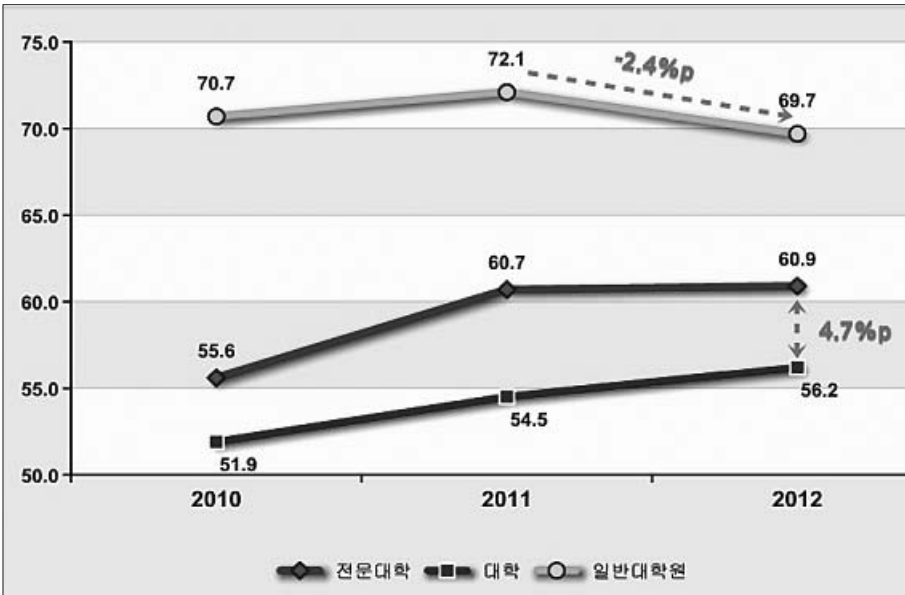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하는 취업률은 취업이 가능한 졸업자 중 건강보험 DB에 가입된 취업자를 추려낸 비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률로 대학을 평가하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수치를 나타내 표현하기 쉬운 이점이 있다.

또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취업을 잘되는 학교가 더 좋은 학교라는 생각도 깔려 있다. 그러다보니 취업률을 허위 공시하고 학생들을 위장 취업시키는 등 안 좋은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가에 활용되는 지표의 점수만 올리는 대학도 보인다.

취업률을 속이는 것 자체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취업률이 대학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취업률이 어떻게 활용되고 대학에 어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주거나 불이익을 줄 때 평가지표로 취업률이 사용된다. 그만큼 외부에서 대학을 바라봤을 때 취업률이 큰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취업률 지표를 대학평가에 사용하는 이유와 취업률이 대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달 23일 발표한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추이. 올해 4년제 대학은 평균 56.2%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제주대는 이에 못미치는 47.7% 취업률을 나타냈다.

영향을 줄까

취업률은 먼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국책사업의 지원 여부나 지원금에 영향을 끼친다. 교육역량강화사업, 학부선진화우수선도(ACE) 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 등 대학 재정과 관련된 사업을 선정할 때 하나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는 평가 지표에서 18%의 비중을 차지했었다. 재학생 증원을 등 대학마다 변별력이 없는 지표를 고려하면 실질 비중은 그 이상을 넘는다.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정부 지원금은 국립대학 제주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립대에 비해 등록금이 싸고 대학운영의 상당 부분을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지표로 쓰이는 취업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대학을 평가하는 기관에서도

쓰고 있다. 대학 평가기관인 중앙일보교육개발연구소는 2011년 기준 취업률을 평가에서 10% 반영하고 있었다.

더불어 재정을 지원해 주는데도 활용을 하지만 불이익을 줄 때도 쓰인다. 대표적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여부가 포함된다. 지난달 31일에는 43개의 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했다. 또 작년 11월에는 충북대, 강원대, 부산교대 등 5개 대학이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개혁을 진행했다.

이렇듯 대학 재정과 평가 지표로써 큰 비중을 갖고 있다. 대학으로서의 취업률이 낮으면 아무리 다른 지표가 좋더라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취업을 낮은 대학'이라고 언론에서 발표하면 대학의 위상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외부 사람들이 대학을 바라보는 시선도 좋을 수 없다. 이

러다보면 우수한 신입생을 유지하는데도 타격을 입게 된다.

취업률이 재학생, 교수에게 미치는 영향

취업은 졸업생이 하지만 취업률은 재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먼저 학교 재정에 여파를 주는 만큼 등록금 산정에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지원 사업에 평가 지표로서 큰 비중을 갖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많이 받는다면 등록금 인하를, 받지 못한다면 인상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교수들에게 취업률은 교수업적 평가에 쓰이는 지표다. 현재 단과대학 취업률과 단과대학에 소속돼 있는 학과의 취업률을 비교해 높으면 가점을 준다. 또 작년에 비해 취업률이 오른 학과의 교수들도 가점을 받는다. 이렇듯 교수의 업적에도 취업률은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취업률 지표 보는 법

이렇듯 취업률은 대학의 구성원, 대학본부에 다양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취업률 지표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

올해 전국 558개 대학의 취업률은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를 통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각 대학 학과마다 취업률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고 타 대학의 유사학과와도 비교 가능하다. 타 대학과 비교하면서 대학을 평가하고 가늠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보이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자료이기도 하다. 학과마다 특성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기 때문이다. 취업률은 현재 일률적으로 만드는 것이지 그것이 진짜 취업률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렇기에 취업률 지표는 단순히 참고 자료로만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에 얽매어서 학과를 판단하고, 대학을 판단하면 안 된다.

김동현 기자

프로 2012 하반기 잡페어(Job Fair) 현장

“일자리만 있다면”... 비교적 한산



지난 21일 제주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잡페어에서 학생들이 모의면접을 하고 있다.

지난 21일 '2012 청년 잡페어(Job Fair)'를 취재하기 위해 제주중소기업지원센터로 향했다.

이번 잡페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대LINC사업단, 도내 4개 대학 총학생회,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했다. 올해는 잡페어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두 번을 진행했다. 학생들이 취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주중소기업지원센터에 도착하니 평소 일자리박람회와는 다르게 부스가 많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사람들도 고등학생과 각 대학 총학생회 임원진을 제외하면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 보였다.

이유는 17일부터 사회적 약자 채용을 위한 토론회, 취업에로계층 일자리 추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21일 열린 잡페어에는 투자가 많이 이뤄지지 못했다. 또 하반기 공채 시즌과 맞물리면서 많은 기업이 참여하지 못했다. 학생들의 관심을 크게 이끌지 못했다.

기자는 오후 1시30분부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업특강을 들었다. 홍주영(한솔그룹) 인사 담당자가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질의응답을 위주로 하면서 자리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궁금했던 것

을 알렸다. 질문은 면접 잘하는 법, 이력서 작성법 등 취업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알렸다.

특강이 끝나고 오후 2시30분부터는 모의 면접 경연이 이뤄졌다. 제주대, 한라대, 관광대 등 3개 대학 8명이 본선에 올라와 경연을 벌였다. 면접을 보면서 어렵고 낯가로운 질문들도 적절히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취업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 경연에서 대상을 받은 오혜련(초등교육과 4)씨는 “롯데백화점에 지원하기 위해 참여했는데 조언을 받으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알았다”며 “이러한 대회가 자주 열려 도내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모의 면접 경연이 끝나고 면접 현장을 방문했다. 평소 보던 면접 현장보다는 사람이 적었지만 면접을 보기 위해 온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었다.

블랙야크에 지원하기 위해 참여한 이민석(관광경영학과 졸업)씨는 “도내에서 열리는 잡페어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낮고 바로 면접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잡페어나 일자리박람회가 앞으로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제주대학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제주의소리와 함께 국제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대학생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외 명강사를 초청해 매주 화요일 오후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JDC 대학생 아카데미는 오는 12월 4일까지 총 13개 강좌가 열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나를 만드는 것은 바로 나 자신

Life is ()

김수영 꿈멘토

어린 시절은 매우 가난했다. 내가 살았던 집은 부둣도 화장실도 없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이 잘 안돼서 전라남도 광주에서 여수로 이사 갔다. 마을회관 방하나에 여섯 가족이 지냈다.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돈이 없어 준비물도 사지 못했다. 어린 나이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불우한 가정환경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탈선으로 이어졌다. 가출, 절도, 폭력을 일삼았고 중학교 때 퇴학을 당했다.

검정고시로 상급고등학교에 입학한 뒤에 도 대학에 갈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나를 변화시킨 것은 팔레스타인 사태로 죽은 아들을 안고 절규하는 아버지의 사진이었다. 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나름 지독하고 거칠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는 진짜 삶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많으며, 자신은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반드시 대학교에 입학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러자 친구들은 '네가 대학에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할 정도였다.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개교 이래로 4년제 대학에 간 사람이 없었다. 부모님도 공장에 취직해서 시집이나 가라고 거들었다. 그때, 우연히 KBS의 도전골든벨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상업계 학생 최초로 골든벨을 울리며 장학금을 받아 원하던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내가 처음 꿈은 기자였다. 그때까지 뭘 이루는 게 없었다. 막상 대학입시를 위한 공부를 하려니 생각대로 되지 않아 막막했다. 남들이 버린 문제집을 주워가며 악착같이 공부해서 수능시험에 375점을 받아 연세대 영문학과에 합격했다. 대학교 재학시절에 일간지 인터넷 기자로 활동하면서 그토록 그렸던 기자의 꿈을 이뤘다. 기자상도

받았다. 꿈을 이루고 나니 다음엔 뭘 해야 할지 막막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과외, 번역, 속기, 모니티오원, 인터넷 강의 등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배낭여행도 다니고 호주로 교환학생도 다녀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계를 무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대학 졸업 후 세계 굴지의 금융회사 골드만삭스에 입사했다. 적성에 너무 안 맞았다. 모니터 안에서는 수천억 달러가 오갔지만, 돈은 내게 관심 밖이었다. 회사생활을 하면서 받은 종합검진에서 암세포를 발견했다.

외국계 대기업에서 화려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던 25살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았다. 영원할 것 같았던 삶이 언제든 끝날 수 있다고 깨달았다. 이 과정 속에서 가치관을 바꿨다. '에베레스트산 등정하기' '인도 배우로 데뷔하기' 등 73가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적었다. 이 꿈을 위해 암 수술 후 골드만삭스에 사표를 내고, 영국으로 유학한 후 '로열 더치 쉘'이라는 런던 소재 다국적 기업에 취직했다. 그리고 목표했던 꿈을 이뤄가고 있다.

시련은 누구나 다 찾아오는데 꿈이 있는 사람만 이겨낸다. 남이에서 살사를 배우고, 마라톤도 뛰고, 킬리만자로에 오르고, 인도 영화에 출연하고, 서른 살 되기 전에 부모님 집을 사드렸다. 돌이켜보면 도전해보니 별거 아닌 것도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꿈은 대단한 것이라 여겨 이미 꿈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자신은 꿈이 없다고 좌절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방향이 없었을 때는 반향하며 살았다. 꿈이 생기고 나니 꿈이 점점 나아져서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다. 꿈은 자주 바뀌었지만 그것들이 있어 계속 나아갈 수 있었다.

꿈은 소문내야 한다. 그래야 얕던 기회도 생긴다. 미래는 과거의 꿈했던 모습이 현실



“꿈이란 삶의 방향이지만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며,

인생은 마라톤이 아닌 꿈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행이다”

의 나이다. 그냥 내뱉은 말이 미래가 될 수 있다. 내가 인도 영화에 출연하는 꿈을 이룬 것도 인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무작정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다녀서 이뤄진 것이다.

가장 큰 꿈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꿈을 찾아주고 영감을 주는 것이다. 꿈이란 삶의 방향이지만 모두에게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며, 인생은 마라톤이 아닌 꿈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행이다. 가진 것 없고 별 볼 일 없고 시련과 불행이 닥쳤는데 이어서 이거밖에 안 된다고 변명하기 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 나간다면 언젠간 명작이 된다. 최대한 많은 꿈을 꾸길 바란다. 그 꿈에 목표시간을 적어 구체적인 인생과의 계약을 만들어야 한다. 생각만 하는 몽상가가 아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하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동하면, 행동하는 만큼 성장하는 법이다.

청년 기업가 정신

한동현 마이크임팩트 대표

마이크임팩트는 국내 최초의 강연 전문 기업이다. 올해로 창업 3년이 됐다. 연매출 30억원에 직원 50명을 둔 기업으로 성장했다. 1400여개 기관, 40여만 명이 강연을 들었다. 마이크임팩트는 강당이나 호텔 연회장에서 점잖게 앉아 딱딱하게 듣는 기존 강연 형식을 탈피해 야외에서 공연과 토크쇼, 퍼포먼스 등을 결합해 페스티벌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이런 방식은 재미와 지식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해서 '강연콘서트'로 불린다. 기술(Technology)·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디자인(Design) 등 분야별 강연을 펼치는 TED와 유사하다.

청년 기업가 정신은 무엇일까? 물음표와 느낌표가 하나로 합쳐진 '인터러프'을 보면 가슴 속에 있는 수많은 물음이 있다. '나는 누구지, 어떻게 살아야하지?' 그 수많은 물음을 느낌표로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청년 기업가 정신이다. 그러나 요즘 그런 청년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 물음의 답을 사회의 시선에서, 친구에서 찾기 때문이다. 한국적인 자기소계 방식은 어느 대학 무슨 학과 몇 학번 누구라거나, 내가 소속한 기관을 통해 나를 말한다. 과연 그것이 진짜 나인가. 회사를 그만두고, 학교를 나오면 나의 존재는 사라진다.

2006년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서 일했다. 해외 유명 경영대학원(MBA) 진학을 준비하던 중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는 것을 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됐다. 보다 큰 안목으로 사회에 기여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로 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 유학 중 케네디 대통령의 강연을 듣고 외교관의 꿈을 키웠다는 부분에서 눈이 번

쩍 뜨였다.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시간이 갈수록 후회가 커진다. 한 일에 대해서는 처음은 후회하더라도 나중에 후회가 적어진다. 두 갈래 길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됐다.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마음을 먹고 나니 또 다른 물음이 주어졌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만들 수 있을까?' 창업을 한 번도 생각해보는 적 없고, 돈 보다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꿈꿔왔던 내가 품었던 질문이었다.

대학생 때 학과에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학생들이 듣지 않고 도망가려 한 적이 있었다. 오직 취업에만 목을 매는 젊은 세대에겐 꿈과 용기, 희망을 심어주는 강연을 제공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괜찮은 비즈니스도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심이 서자 회사를 그만두고 강연 전문 기업을 차렸다.

친구 3명에서 자신의 돈을 털어 국내에서 가장 큰 체육관을 빌렸다. 첫 행사 날짜를 잡고 나니 무조건 해야만 했다. 2009년 5월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가수 신해철씨가 무대에 홀로 서자 5000여석을 가득채운 대학생들이 술렁였다. 신씨는 자신이 명문대를 포기하고 가수의 길을 걷기로 했는지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노래 제목대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를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고 말하는 대목에선 몇몇 학생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강연이 끝나고 신씨가 기타를 연주하며 히트곡들을 선보이자 체육관 안은 달아올랐다. 다행히 오천 명을 불러들이며 성공을 거뒀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려고 계획했던 일도 아니었다. 내가 사업 수완이 좋아서 성공을 예측하고 시작한 일도 아니다. 다만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니 그 다음 단계가 열렸다. 어떻게 할지 모르더라도 닦치고 실행하라. 첫 발을 떼면 그 다음 길이 열린다. 모든



“청춘은 가진 것이 없다는 거다.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이번 학기에 무엇을 할까가 아닌

앞으로 뭘 하고 살까를 고민하라”

위대한 일의 시작은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의 시작이었다. 성과는 생각에 실행력을 곁한 것이다. 실행하지 않으면 성과 역시 없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마음에 남아 있으면 고문이다. 성공을 이끄는 힘은 긍정과 즐거움이다.

다음 질문은 '나는 무얼 해야 할까'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해라. 사랑하면서 그 아픔이 안타까움이 전해지지 않느냐, 사랑하면서 동시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것을 해야 한다. 청춘은 가진 것이 없다는 거다.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이번 학기에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까를 고민했으면 한다. 취직도 좋지만 생각과 경험을 많이 하는 지금, 인생을 어디로 가야할지 생각해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알고 나니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 혼란감이 없었다. 청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꿈을 펼치면 성취욕과 성공을 동시에 거머쥔 수 있다.

작지만 당당한 ‘탐라’ 건국의 위업 신화로 남아

학술기고 제주신화에 담긴 해양문화



허 남 훈
국어국문학과 교수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고대 건국신화의 주인공은 대부분 하늘에서 내려온다. 왕권을 공고히 하려면 하늘의 권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제주의 옛 왕국은 탐라국이다. 탐라 건국 주인공은 땅에서 솟아났다. 땅은 만물을 산출하는 근거지이고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이 식물처럼 대지로부터 솟아올랐다고 상상했다.

탐라국 건국신화에는 땅에서 솟아난 원시적 요소와, 문명을 받아들여 나라를 세운 고대적 요소가 섞여 있다.

제주의 신화 대부분은 신이 땅에서 솟아난다. 당신본풀이를 보면 땅에서 솟아나는 것을 위주로 하다가,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신들이 등장하고, 중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유를 은근히 덧붙혔다. 천지왕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당신들은 중세적 분석이 가해진 증거가 아닐까 한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는 칠머리당영등굿의 영등신은 강남천자국에서 솟아나 제주로 들어왔다. 육지의 영등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여겼는데 반해 제주에서는 바다 저 편 ‘강남천자국’에서 온다고 여겼다. 영등신은 풍신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이 신은 제주도에서 해상안전, 풍어, 해녀 채취물의 증식 보호신으로 신앙하게 된 것이다.

고려 왕건의 탄생신화와 유사한 신화가 제주에 <군웅본풀이>로 남아 있다. 고려 왕건이 여기서는 ‘왕근’이다. 이 신화에서는 고려 대신 조선이 국명으로 등장하고, 그 형제들이 조선뿐만 아니라 강남천자국(중국)과 일본국에 좌정한다고 한다. 왕의 세 아들이 각각 강남천자국, 일본호자국, 조선역신국 군웅이 되었다고 본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군웅이 우리 나라와 제주에만 국한하지 않고 강남천자국(중국)과 호자국 혹은 주년국(일본)에서 신격으로 활약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중세 제주의 삶은 바다 멀리 중국과 일본을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다만 중국과 일본이란 나라에 대한 정보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바다를 통한 교류를 의미하며, 탐라국이 지녔던 해상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강남천자국

영등신과 삼여신을 비롯한 무수한 제주의 신이 출자한 강남천자국이 어디인가. 천상계에서 하강하는 고대 건국신화 다음에는 바다 건너 땅에서 도래하는 시조도래신화가 탄생한다. 삼여신이 망아지와 송아지, 그리고 오곡종자를 가져왔다는 것은 고대문명을 전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삼성신화의 삼여신은 일본국 혹은 벽랑국에서 왔다고 하고 있는데 반해, 삼성신화의 근원이라 할 송당본풀이에서는 백주또 여신이 ‘강남천자국’에서 왔다고 한다. 그리고 강남천자국 백모래밭에서 솟아났다고 한다.

남신 소로소천국이 제주 절도섬에서 솟아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태어났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문곡성은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굴다가 무쇠칼함에 담겨 버려지지만 용왕궁에 표착하고, 다시 식성이 과다하여 상자에 담긴 채 쫓겨나 강남천자국에 표착한다. 후에 강남천자국의 난을 평정하고 제주에 돌아와 한라산 보름목에 좌정하게 된다.

“탐라는 해상활동을 통해

한반도·중국·일본과

교류하면서 독자적인 문명을

일구었던 고대국가였다”

일본과의 교류

우리는 송당본풀이에서 백주또와 문곡성이 ‘강남천자국’에서 출자한 모습을 보게 된다. 민간전승에서는 ‘바다 저쪽’이라는 의미의 ‘벽랑국’이라 하다가, 구체적인 ‘일본국’ 혹은 ‘금관국’이라 하기도 하고, 바다 저쪽, 동·서·북방보다는 좀 더 넓게 펼쳐진 남쪽을 택하였고, 중세 어느 시기에 중국의 권위를 덧붙인 ‘강남 천자국’을 출자처라고 여기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은평리는 바로 탐라건국신화의 세 여신이 도착한 곳으로 구전된다. 탐라건국신화의 3여신은 바다 먼 곳에서부터 출자한다. 그곳은 ‘벽랑국(鵝浪國)’ 혹은 ‘일본국’이라 한다. 벽랑국은 바다 먼 상상의 땅, 나라이냐와 같은 해양낙토로 본다.

탐라국 시절 그들에게 바다와 바다 건너 일본은 문명의 중요한 교류처였을 것이다. 일본은 애초 북큐슈에서 대마도를 경유하여, 남해안과 제주도 사이, 조선반도 서해안, 옹동반도 남해안을 거쳐 산동반도 등주(登州)에 이르는 북로(北路) 루트로 중국과 교류하였다. 그러다 조선반도의 정세변화에 의해 이 루트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송당 마을제에서 무당이 굿을 하고 있다. 송당본풀이는 영웅적 주인공을 통해 탐라 건국신화를 알려주고 있다.

나당전쟁 이후 나당관계가 단절되고 왜국은 북로의 견당사 파견이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게 되었다. 이때까지 탐라국은 일본과 중국의 중간에 위치하여 다양한 교역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660년 백제가 당군의 침공에 의하여 멸망하자, 탐라는 독자 외교를 전개하며, 그 해에 당에 사신을 파견하고(<唐書>) 661년(왜국 齊明天皇 7년)에는 제4회 견당사가 탐라에 표착했던 것을 기화로 왕자 아파기(阿波伎) 등을 일본에 파견하고 조공하였다.

여기서 일본의 견당사가 탐라에 표착하였던 점을 주목할 만하다. 북로 항해 중에 한반도의 남해안도 항해의 표지가 되지만, 해발 1950m의 한라산은 시인거리가 약 100마일이나 되어 주변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에겐 자기 위치를 측정하고, 항로를 결정하는데 매우 이상적인 등대 역할을 했다.

탐라가 중간 정거장 기능과 함께 피항지로서의 역할을 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아울러 해양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이전은 탐라국에 중요한 기항지 역할과 함께 중국과 일본의 중간교역을 하는 장소로서도 가능하였을 것이다.

탐라국의 해상능력

삼성신화의 근원이라 할 <송당본풀이>에서 주인공 문곡성은 억만 군사를 받아 강남천자국의 난리를 평정한다. 그리고 천자로 부터 여러 가지 포상을 제시하지만 거절하고 제주로 돌아온다. 버려진 아들이 나중에 군사를 이끌고 고국에 돌아와 아버지 나라를 치려고 했다는 내용은 매우 고대적이고 야생적인 요소를 그대로 간직한 신화다. 목

은 질서는 이렇게 강하고 새로운 질서에 의해 교체된다고 생각하는 문맥 속에서 고대 영웅신화의 전형을 보게 된다.

송당본풀이의 문곡성과 같은 주인공이 천자국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난리를 평정했다는 것은 주인공의 대단한 영웅적 면모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자국(중국)에서 인정하는 활약상이라 하겠다. 그리고 천하의 반을 갈라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하고 제주에 돌아온 내력은, 주인공의 해상능력을 보여주는 바이다.

탐라 건국신화는 재래의 수렵민과 외래의 농경민이 결합되어 생산력을 발전시킨 토대 위에서 안으로 정치적인 통합을 이룩하고 밖으로 주권을 지키는 영웅이 해상활동을 통해 힘을 키워 작지만 당당한 나라를 세운 위업을 나타냈다. 탐라국이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백제·신라·일본·중국 등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왕래하면서 교역을 했다. 상대방에 비해 모자라지 않는 정치적 역량, 군사력, 항해능력 등을 두루 갖추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제주, 고려 중엽부터 불린 이 지명은 제주로서는 타자의 이름이다. 서울에서 저 멀리 바다 건너 있는 땅이란 의미의 제주. 이제는 ‘탐라’란 고유명사를 회복해야 한다.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와 함께 탐라국도 고대 국가였다. 해상활동을 통해 한반도와 중국, 일본과 교류하면서 타문명을 수용하면서도 독자적인 문명을 일구었던 고대국가였다. 삼국시대 이전에 5국시대가 있었다.

역사 교과서는 탐라국을 고대국가의 반열에 넣고 온당한 평가를 해야 한다. 삼별초의 잔당이 머물던 지역 혹은 죄인을 유배 보내는 섬이라는 편협한 선입견을 불식시켜야 한다. 고대 건국신화가 남아 있고, 선주민이 이주민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고 독자적인 문화를 중세 이후까지 꽃피웠던 나라로 인정해야 한다.

한권의 책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심오한 판타지

저자 단테는 1265년에 태어나 1321년 임종하였다. 그가 태어난 시기는 중세 스콜라철학의 대표자인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가 임종하기 약 10년 전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중세의 황금기 시대를 산 사람이며, 그의 정신적인 지주는 당연히 스콜라철학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철학자의 눈으로 보자면 그가 쓴 『신곡(神曲)』은 당시의 신비주의적 세계관을 일종의 ‘알레고리’를 통해 일상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의 저서 도처에서 스콜라철학의 핵심적인 사상들, 특히 신비주의적 사상들이 진하게 풍겨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곡』은 저자 단테가 지상에서 림보를 지나 지옥으로, 그리고 다시 지옥을 지나 연옥으로, 마지막으로 연옥을 지나 천국에 도달하여 결국은 자신의 일생일대의 소망이었던 신을 마주 보게 되고 자신이 신의 빛 속에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는 시점까지의 여행기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행이 가능했던 것은 지상에서의 그의 유일한 사랑이었던 베아트릭체라는 한 天國 여인의 원의에 의해서였다. 물론 이러한 여행기는 ‘실제’가 아니라 베아트릭체라는 여인에 대한 단테의 지순한 사랑이 창조해낸 상상의 산물인 ‘소설’이다.

하지만 소설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러한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는 ‘저편의 세계’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어쩌면 실제로 존재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 아마도 이 ‘소설’의 가장 큰 위대함은 읽는 이로 하여금 이러한 느낌을 가지게 한다는 그 자체에 있을 것이다. 비록 그 스토리가 매우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이 책의 묘미는 림보, 지옥, 연옥, 천국이라는 각각의 세계에 대한 놀라운 묘사를 음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옥의 다양한 계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들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상에서의 죄악을 정화하는 장소인 연옥의 과정들, 마침내 빛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천국의 다양한 지평들을 오르는 그 모습들이 그 어떤 판타지영화 보다 흥미진진하고, 또한 엄밀한 철학적 이론의 바탕 위에 상상한 내용들이어서 마치 실제로 지옥과 천국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을 마지막까지 읽는 사람이라면 책장을 덮으면서 마치 ‘템플스테



단테 지음
『신곡』

이’나 ‘피정’을 하고 난 뒤의 자신처럼 정신과 마음이 정화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의 중반을 넘기지 못하고 도중에서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지옥편의 내용들이 끝까지 읽기가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지옥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냐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연옥을 통과하면서 천국의 문에 이르며 도저히 책장을 덮을 수 없으리만치 몰입하게 될 것이다. 마치 지구의 중력을 벗어난 우주선처럼 너무나 가볍고 평화롭게 그리고 가슴 충만한 어떤 희열을 느끼며 천국의 놀라운 모습들을 상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이라면 마지막으로 올수록 너무 빨리 이야기가 끝남에 아쉬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단테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한 그 메시지를 어느 사이 가슴 깊이 통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며, 오직 사랑만이 인간을 진정한 자유롭게 하고 ‘구원’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의 모든 곳에는 바로 이러한 神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단테는 이러한 자신의 신비주의적인 믿음을 이 소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의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철학자의 눈에 이 책은 소설이라기보다는 한권의 『예언서』로 보이는 것이다. 세상이 惡하다고 한탄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세상이 조금만 더 좋게 되기를 희망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한 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이명곤
철학과 교수

STS 과학문화 시사칼럼

새로운 가치창출의 원천인 생물자원의 존재 가치



정 용 환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 연구소장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풀, 꽃, 나무, 곤충, 동물, 미생물 등 다양한 생물 자원들이 분포·자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물 자원들은 최근 생명공학의 발달에 힘입어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인 생물산업의 소재로서 자산가치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생물자원(Biological resource)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배양가능한 생물체(미생물, 식물, 동물 등)’를 말한다. 우리 인류는 탄생과 더불어 자연을 서식지로 삼고 자연의 일원으로 다른 생물종과 함께 살아오면서, 이들이 가져다주는 물질과 서비

스를 얻어 왔는데 그 의의와 가치를 더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생물자원 즉, 생물다양성은 인간이 의존하는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기능을 부여해주고,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질을 공급해 줄 뿐 아니라 인간생활의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공헌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생물자원의 자산 가치는 그 자체로도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한 먹거리, 양질의 의료서비스, 쾌적한 환경, 청정바이오에너지 등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의 소재로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천연물 의학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버드나무 유래 전통제 ‘아스피린’, 주목나무 유래 항암제 ‘Taxol’, 스타아니스 유래 신종물루 치료제 ‘타미플루’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는데 최근 이러한 생물자원의 시장규모는 약 8,600억 달러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다양한 생물자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일찍이 인식하여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제시하여 세계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피해국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선진국의 무단 남획으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고유 생물자원이 외국으로 반출되어 상품화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세계적 식량자원으로 한몫을 차지하는 키작은 밀의 유전인자가 바로 우리나라 토종인 ‘얇은뽕이 밀’에서 나왔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멸종되었으며, 토종식물인 ‘수수꽃다리’가 미국으로 반출, ‘미스킬라일락’이라는 이름으로 증식되어 미국 라일락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최근 들어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하던 생물자원을 각국의 고유자원으로 선언하고 권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생물자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UN은 2010년을 ‘생물다양성의 해’로 지정하고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2020년까지 ABS의정서(Access to genetic resource and Benefit

-Sharing,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협정)를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의정서에는 생물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그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국가 간 생물자원관련협약 등을 통해 생물유전자원을 보유한 저개발국과 이용기술을 보유한 선진국 간의 win-win 전략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식물인 ‘후디아’를 재료로 신약기술을 개발하였으나, 남아프리카 토속부족(젠족)이 주식으로 먹는 식물로 알려지면서 생산이익을 배분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물주권을 구현하거나 21세기 전략산업인 생물산업의 육성·지원 기반을 확립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생물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토종식물인 ‘수수꽃다리’. 미국에서는 ‘미스킬라일락’이라는 이름으로 증식돼 미국 라일락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2010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의 총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생물종 목록 작성 등을 골자로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고 있다.

생물자원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원할 때 얻을 수 있는 공동자산으로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공기가 없어 숨을 못

쉬게 되면 비로소 이들의 진가를 알 수 있듯이 생물자원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생물자원을 환경보전의 차원이 아니라 국부 유출 자원에서 새롭게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내 토종자원 뿐만 아니라 국내에만 서식하는 특산 생물자원에 대한 무한한 가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천인 생물자원의 진정한 존재가치를 인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총장 간선제 내년 실시... 내외인사 참여 총장추천위가 핵심 역할

공모에 의한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제도 개선안



이 경 원
행정학과 교수
총장 선정제도 개선안
연구책임자

1. 배경

대학의 자율성이 위기를 맞고 있다. 교과부의 일방적 전횡에 총장직선제의 폐지가 이를 반증한다. 교육예산을 연계한 교과부의 자의적 법령(교육공무원법 및 동 시행령) 적용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물론 이의 배경에는 자율성을 남용한 대학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도 한 몫을 했다.

총장직선제의 도입은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 신장에 기여해 왔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시행 20년이 지난 현재 선거과정 및 막대한 유·무형의 선거비용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현재 진행 중인 관치교육의 폐해는 두고두고 교육현장을 떠돌 것이다.

대부분의 국립대학이 예산을 포함한 유·무형의 압력 속에 속수무책으로 직선제 폐지를 받아들였다. 우리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학기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책무성 제고라는 미명하에 교과부가 제안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의 행·재정적 지원책과 소위 '부실대학' 지정과 연계한 총장직선제 폐지 요구에 백기투항의 수순을 밟아왔다.

대학의 진지한 의견 수렴과 토론은 생략한 채, 우리 대학은 교직원 찬반 투표(2012.3.21)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찬성 68.7%)를 반영하여 총장 선출방식을 직선제가 아닌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공모에 의한 선정방법으로 학칙 개정을 신속하게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모에 의한 총장임용 후보자 선정방식을 2012. 11월까지 마련하기로 교과부와 양해각서(2012. 3. 30)를 체결하였다.

2. 공모에 의한 총장선출제도 개선안

최근 제출된 총장직선제 개선안은 공모제를 근간으로 직선제의 폐단을 극복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에 후보자의 개방성, 후보자 선출의 공정성 그리고 대학의 특수성 등의 원칙이 고려되었다. 이를 담당할 제도상의 기구로서 3+1을 제안하고 있다. 총장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 공모위원회(공모위), 총장임용 추천위원회(총추위) 그리고 검증위원회(검증위)가 그들이다.

먼저, 관리위는 교수회장으로 하여금 총장임기 만료 9개월 전까지 구성하도록 한다. 관리위의 기능을 보면, 1) 총장 임용규정에 따른 공정한 선거 절차 업무와, 2) 공모위, 추천위 및 검증위 위원 추천 등을 수행하게 된다. 관리위 위원 구성은, 1) 교수회장(단, 교수회장이 총장임용후보 응모

	척도 방식		표결 방식		비고
	대안-A	대안-B	대안-C	대안-D	
1차심사 (서류심사)	• 총추위 • 서류 및 발전계획서 등 심의	• 총추위 • 서류 및 발전계획서 등 심의	• 총추위 • 서류 및 발전계획서 등 심의	• 총추위 • 서류 및 발전계획서 등 심의	• 3점 척도 • 5인 이내 선출
2차 (합동면접, 정책토론)	• 총추위+검증위 • 5점 척도 방식 • 3차 심의 대상자 의결 생략	• 총추위+검증위 심의 결과율 각각 50% 반영 • 3인의 3차 심의 대상 후보자 선정 • 5점 척도 방식	• 검증위 • 3인의 3차 심의 대상 후보자 선정 • 선호도에 의한 표결방식	• 총추위 • 3인의 3차 심의 대상 후보 선정 • 선호도에 의한 표결방식 (또는 5점 척도 방식)	• 5점 척도 (척도 방식)
3차 (심층면접)	• 총추위 패널 통한 심층면접 심의 결과율 40% 반영 • 2차 결과율 각 30%(총추위 및 검증위심의 결과 각 30%) 반영	• 총추위의 3차 심의 결과 50% 반영 • 2차 심의 결과 50% 반영 • 1, 2순위의 임용후보자 선정	• 총추위 • 1,2순위의 임용후보자 선정 • 선호도에 의한 표결방식	• 총추위와 검증위 선호조사 결과 각각 50% 반영 • 1,2순위 임용후보자 선정 • 선호도에 의한 표결방식	• 1,2순의 확정
장점	• 2,3차 심의 결과 종합으로 검증위의 심의 결과율 최종 단계에 반영. 이를 통해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 반영 기회 확대 • 3차의 심도 있는 개방형 질문 통해 후보자의 동기, 학문적 활동 및 태도, 비전, 대학발전 어젠다 등 탐색 • 다양한 문항을 통한 후보자의 체계적 심사·평가 가능	•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다단계적 심의결과에 반영. 특히 총추위 역할 각 단계에서 강조 • 3차의 심도 있는 개방형 질문 통해 후보자의 동기, 학문적 활동 및 태도, 비전, 대학발전 어젠다 등 탐색 • 다양한 문항을 통한 후보자의 체계적 심사·평가 가능	• 총추위와 검증위에 의한 단계별 심사로 추천위 이외의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중간 결정 과정에 독립적으로 반영 • 3차의 심도 있는 개방형 질문 통해 총장임용후보자의 동기, 학문적 활동 및 태도, 비전, 대학발전 어젠다 등 탐색 • 3차 심의 단계에서 총추위 표결을 통해 최종 선정 과정을 단순화	• 최종결정 과정에 검증위가 포함됨으로써 학내 구성원들의 폭넓은 의견 반영 • 3차의 심도 있는 개방형 질문 통해 총장임용후보자의 동기, 학문적 활동 및 태도, 비전, 대학발전 어젠다 등 탐색 • 3차 심의 단계에서 총추위와 검증위 선호를 함께 반영. 최종 선정 과정의 신뢰성 제고	
단점	• 2차심의 의결과정 생략으로 선출 결과에 따라 대표성 결여가능 • 면접자의 심층면접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방법, 패널위원의 포괄적, 숙련된 면접능력, 판단능력 요구 • 문항설정의 타당성 확보 난제	• 검증위의 제한적 역할 • 면접자의 심층면접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방법, 패널위원의 포괄적, 숙련된 면접능력, 판단능력 요구 • 문항설정의 타당성 확보 난제	• 검증위의 제한적 역할 • 면접자의 심층면접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방법, 패널위원의 포괄적, 숙련된 면접능력, 판단능력 요구 • 최종 3차 심의를 학외위원이 포함된 총추위의 단순 표결에 의존, 결과의 신뢰성 문제제기	• 현행 법령(교육공무원임용령)과 갈등의 소지 • 면접자의 심층면접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방법, 패널위원의 포괄적이고, 숙련된 면접능력, 판단능력 요구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심의 및 선정 방식

시 권한 대행 순서에 따름), 2) 제주대학교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교수 5인, 3) 직원 1인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공모위는 총장후보자의 공모, 추천 업무를 위해 총장임기만료 8개월 전까지 구성한다. 공모위의 기능은, 총장후보응모자의 공모와 초빙, 총장후보응모자의 지원 서류 등을 근거로 형식적 자격심사에 대한 심의·의결, 그리고 총장후보응모자를 심사하여 총추위에 형식적 적격자의 통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공모위의 위원구성 은, 교원위원(7인)과 직원위원(2인)으로 이루어진다. 총장후보응모자의 공모와 자격요건은 학내와 학외후보자로 구별된다. 먼저 학내 후보자의 경우, 1) 10년 이상의 제주대학교 근무 경력자, 2) 제주대학교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수 3인의 추천(추천시)을 받은 자, 3) 지원서 접수 시 2,000만 원을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재단에 납부한자에 해당된다. 학외 후보자의 경우, 1) 박사학위 소지자, 2) 공무원 1급(관리관 급) 이상에 준하는 직위, 3) 지원서 접수시 2,000만원을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재단에 납부한자보다 구제적인 세부 자격은 공모위에서 추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총추위의 역할은 선정과정에 있어 최종적이고 핵심적이다. 법령상의 기구로서 직선제하에서의 단순관리 역할과는 달리 새로운 공모제 방식에서는 총장선출 과정에 있어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즉 공모위가 추천한 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의 구성을 보면, 법령상 5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총추위 위원 정수는 학외위원수를 고려하

여 총 48인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총추위는 학내 위원 36인과 학외위원 12인으로 구성하고, 전체위원 중 여성위원은 10인 이상으로 한다.(학외위원과 여성위원 위촉은 '교육공무원임용령 12조의3 제1, 2항에 의거)

이 가운데, 학내위원은 교원위원으로 구성(여성위원 8인 이상 포함)하고, 학외위원은, 평의회에서 추천하는 학외위원 5인(여성위원 1인 포함),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학외위원 4인(여성위원 1인 포함),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학외위원 1인, 총동창회에서 추천하는 학외위원 1인, 그리고 기성회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학외위원 1인이 이에 포함된다.

총추위의 구성 시기는 총장임기 만료 4개월 전까지 관리위에 의해 구성된다. 총추위 위원의 자격을 보면, 학내위원은 제주대학교에 5년 이상 재직중인자로 한다. 다만 현 총장이 후보로 응모, 접수한 경우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현 총장으로부터 임명받은 조직 및 시설의 장은 학내위원 자격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학외위원의 경우, 정·관계,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학계 및 기타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과 신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내·외 위원 선발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내위원 선발은, 대학별 구성 비율에 따라 학내위원수를 배정하고, 구성원이 15인 이내인 경우는 유사 학문계열에 통합한다. 그리고, 학내위원은 총추위 1차 심의 개최 전날에 단순무작위표집방법으로 선발하고, 선발된 위원은 통보받는 즉시 심의 장소로 집결하도록 한다. 학외위원의 경우,

관리위로부터 총추위 학외위원 추천을 요청받은 부서는 30일 이내에 학외위원을 추천하거나 또는 30일 이내에 추천위원수 3배수를 학외위원 대상위원으로 추천하게 된다.

총추위의 심의 및 선정 방식(요약)은 다음과 같다. <표 참조>

마지막으로, 검증위는 직선제 폐지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총장선출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후보자의 총장 적합 여부를 검증할 목적으로 검증위를 별도로 구성한다. 검증위 대상위원은 재직 전임교원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교원은 재직 전임교원의 10%로, 직원은 교원 검증위원으로 확정된 전임교원의 10%로 정한다.

3. 제언

새로운 규정의 제정에 앞서 우리 대학의 '바람직한 총장象'을 탐색하는 과정을 제안한다. 급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사회와 대학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대학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과 대학총장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오늘날의 대학총장은 대학 발전을 위한 재정의 확보는 물론 교육·연구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그 대학의 특성과 처한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하여 명확한 비전과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선공모제의 안착을 위해 우리대학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총장象'은 무엇인가에 관한 숙고를 기대한다.

제주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12>

당도 높고 색깔 선명한 구와 당근으로 케이크 만드는 권혁란씨

“그래! 여기가 제주도야”라고 할 만큼의 끝없이 펼쳐져 있는 푸른 바다, 인적 드문 아름다운 시골마을에 사람이 북적이는 곳이 있다. 권혁란(61·한림읍 귀덕1리)씨의 케이크 가게이다. 이곳이 당근케이크 가게라는 걸 알려주길라도 하듯 문 앞에는 주황색 자전거가 서 있었다. 들어가니 고소한 빵 냄새가 풍겼다. 가게는 오랜 해외생활을 했던 그의 체취가 묻어나는 소품들로 꾸며져 있었다. 인형, 책장, 접시 어느 것 하나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었다.

권씨는 당근 예찬론자다. 그중에도 제주의 당근을 최고로 꼽는다. “제주산 당근은 다른 당근에 비해 당도가 높고, 색깔 또한 선명해요. 제주도는 최대의 당근산지죠.” 최대의 당근산지에서 케이크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라는 그는 “저의 케이크를 맛보려면 제주도로 저를 직접 찾아오거나 따로 주문을 해야 한다”며 맛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런 자신감을 갖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이제는 인터넷 검색창에 제주당근이라고 치면 연관 검색어로 당근케이크가 나올 정도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가게는 늘 붐빈다. 추석을 맞아 그의 케이크를 주문하는 사람도 늘었다. “오늘도 새벽부터 케이크를 굽고 일일이 포장해서 우체국에 다녀왔다”는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다.

그의 당근케이크는 제주 구좌지역 당근소비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미국에서 당근은 먹기 좋게 손질돼 나와 아이들이 스낵처럼 먹어요. 당근은 우리 식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식품이며, 우리 건강에 굉장한 도움이 되죠. 이런 당근을 어떻게 하면 덜 거부감을 갖고 먹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당근케이크를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들에게 보다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케이크를 대접하고자 했던 마음이 그의 제2의 인생을 설계해줬다. 요새는 권씨 말고도 당근케이크를 만드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하지만 오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만큼 분명 맛에는 차별화가 있다. 그런 말을 하며 웃는 권씨는 사실 의외로 소위 말하는 스펙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해 MBC 아나운서까지 맡았었죠. 남편도 대학 동창이었고요. 결혼 후 외국으로 나가 프리랜서 활동을 했어요. 오랜 해외생활을 거치며 여유와 성숙한 마음가짐을 갖게 됐죠.”

오랜 기간의 해외생활 끝에 그가 선택한 마지막 행선지는 제주도다. “오택동안 살던 곳을 떠나 사는 것이 쉽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익숙해질 때까지의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누구나 그래요. 그래도 저는 제주도에서 적응하는 것에 오랜 해외생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젊은 시절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며 생활했던 그가 늙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살 장소로 선택한 제주도. 제주도를 사랑하고, 제주 당근을 사랑하는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제주당근으로 케이크를 굽는다. 윤신혜 기자



권 혁 란 당근케이크 전문가

제주어 낱말맞추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⑦	
	⑧			⑨		

()학과/학부 ()학년

이름 : 연락처 :

제주대신문



가 도 열 쇠

1) 소뿔을 돋보거나 키우는 사람을 가리키는 제주어다.

3) '근장자'와 '작은장자'를 동틀이 이르는 2음절로 된 제주어로, '장자'라고도 한다. 성격이 못된 사람을 가리켜 '○○긔다'라고 한다.

4) '도매뽕'을 제주에서는 ○○○라고 부른다.

6) 제주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의 하나로, 이것을 주재료로 하여 병곡 찹쌀 초를 넣어서 만든 음식 이름이다. 서귀포시 보목리, 대정읍, 조천읍 북촌리 바닷가에서 많이 나는 바닷물고기다.

7) 파초를 제주에서는 ○○라고 한다.

8)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덤비는 담기를 말한다. 원기가 없으면 '○○옧다'라고 하고,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기운이 있을 때는 '○○중다'라고 한다.

9) 쌀의 하나하나의 알을 가리키는 제주어다. 이것이 떨어져 있으면 "○○○ 쏘이랴"처럼 표현한다.

세 로 열 쇠

1) '소의 털'을 의미하는 제주어다.

2) 집 울타리 안에 있는 뒷밭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우연, 위연'이라고도 한다.

3) '질경이'를 제주에서는 ○○○라고 한다.

5) '배의 머리'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배의 뒷부분을 제주에서는 '고불, 고물'이라고 한다.

6) 아이들 놀이예 하나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째딱한 나무토막을 곧 박대기로 켜서 날아간 거리를 재어 승부를 정하는 놀이는 ○○○라고 한다.

7) 큰 통나무를 파서 만든 절구를 제주에서는 ○○○라고 한다. 예전 제주에서는 방앗간이 없을 때 ○○○에서 곡식을 찧어서 먹었다. 두 명, 세 명, 네 명이 둘러서서 절구공이가 부딪치지 않게 간격을 맞추어서 곡식을 찧는다.

제주어 낱말맞추기 응모자는 10월 26일 (금) 오후 6시까지 풀이지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당첨자 2명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드립니다. 이번 호 당첨자는 10월 31일(수) 879호 제주대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064)754-2277 또는 010-9206-4598

제주어 낱말맞추기 당첨자

양희정(행정학과 3)
고준예(정치외교학과 1)

<875호 정답>

하	르	방			초	신
영		등				칼
		이	여(어)	도		
				새		
곤	밥			기	여	
	푸	대			호	미
	대					녕

출제 : 국어문화원 부설 제주어센터

교육역량강화사업 안내

1. 직무인적성 검사 프로그램
대상 : 3~4학년
신청기간 : 9월 26일까지
신청방법 : 취업전략본부 홈페이지 신청

2. 청년 우수인재 집중 지도
대상 : 전학년, 미취업 졸업생
신청기간 : 9월말까지
신청방법 : 취업전략본부 홈페이지 신청

3. 영어우수장학금 지원
대상 : 전학년
신청기간 :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청방법 : 하영드림비 내 신청서와 통장사본 소속학과 제출

4. FLI 영어 역량 강화 지원
대상 : 외국어특별강좌 수강자 중 우수수강자
신청기간 :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신청방법 : 외국어교육어 홈페이지 내 수강신청

5.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마중물 프로그램)
대상 : 외국어특별강좌 수강자 중 우수수강자
신청기간 :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신청방법 : 외국어교육어 홈페이지 내 수강신청

6. 단과대학 맞춤형 워크숍
대상 : 전학년
신청기간 : 프로그램 종료시까지
신청방법 : 기초교육원 홈페이지

교수신문

대학가 술문화 이대로 안된다



김문정
간호학과 교수

“

술 강권하는 대학 음주문화

이제는 바뀔 때...

책 읽고 토론하는 대학생활이

진정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까지 입법예고한 위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뜨겁다. 개정안은 대학 내 부대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 장소를 제외한 모든 곳에 주류 판매 금지와 음주 금지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생에게 유독 관련한 음주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대학의 낭만과 자치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나는 대학 신입생 때 소주 한 병을 마시고 극도의 불쾌한 경험을 한 이후로 소주를 잘 마시지 않으며 어쩌다가 술을 마시게 될 때에는 맥주 한 두 잔 마시고 마는 사람이다. 또 간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술이 회피적 대처기전의 대표적인 예로 알고 있기에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매번 멘 정신으로 대처하는 것이 힘들다 하여 술을 마시지는 않는다. 따라서 술에 대한 나의 시선은 약간 편향적임을 고백하겠다.

우리나라는 음주의 양이나 행태에 대해 매우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폭음의 기준은 한 번에 소주 5잔 이상 마시는 것인데 이 기준에 근거해 2011년 한국음주문화 연구센터가 대학생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71%가 폭음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행태와 관련해서도 무조건 원샷을 강요하는 대학생들의 술문화는 주폭을 양성한다는 죄를 피하기 힘들며 주폭 행태와 관련된 사회문제도 적지 않았다.

2010년 모 대학의 학생이 학과 휴게실에서 선배들의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한 벌로 소주 2병을 강제로 마시고 숨진 사건을 비롯하여 2006년 이후 술 때문에 숨진 대학생만 15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201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도 술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술에 대한 관대함 때문에 폭음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음주사망과 성폭행과 폭력이 사회문제로 번졌다.

보건복지부의 대학 내 금주 조치에 대해 모대학 총학생회장이 “캠퍼스에서 낯술을 한 잔 가볍게 하는 것은 대학생활의 활력소이자 좋은 추억이다”라고 말한 언론기사를 본 적이 있다. ‘전국에 금주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캠퍼스 내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인데 왜 저렇게 반대하는 거지?’라는 나의 의문이 캠퍼스의 낭만이 술에 있다는 말에서 풀렸다. 작년 봄 모 대학 캠퍼스에서 낯술판을 벌이고 있던 대학생들을 보며 저절로 낯살을 찌푸리던 기억이 났다.

나는 대학이 진리를 탐구하고 인생을 설계하며 젊음의 열정을 불태우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야말로 대학의 낭만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대학에 다닐 때는... 이렇게 시작하려다 멈췄다. 그래도 나의 대학시절을 짧게 이야기 하자면, 시대와 사회에 대한 호기심과 지적 탐구심이 많아 선배들과 인생과 철학, 문학, 정치, 사회 등을 주제로 논쟁을 하면서 지지 않으려고 전공이 아닌 다양한 서적들을 읽으며 인간과 인생을 보

는 안목을 넓혔다.

남·녀 기숙사에서 벌이는 ‘Open House’라는 행사에서 친구들을 초대하고 초대받기도 했고, 축제 때는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 미팅이나 소개팅을 한 적도 있고, 해부학의 기초를 동아리 선배들에게 배웠고, 산악회 동아리에서는 지리산을 비롯한 국내 여러 산을 등반하며 호연지기 와 단합심을 기르는 등 학교와 학과, 동아리 행사에 참여하면서 내적 성장과 소속감, 자부심을 길렀는데 이는 전공지식의 습득만으로는 부족한 사회생활에 대한 준비도 되었던 셈이다.

전공을 불문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웬만한 수준에서 취업이 다 되었기에 학생들은 공부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필수라고 여겼던 알 까기(Abraxas)의 찬란한 고통을 겪는 자유를 누렸는데 이것이 내가 경험한 대학생활의 낭만이었다.

요즘의 대학생들을 보면 지금과 같이 힘든 시대를 물려준 것이 미안한 마음이 자주 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를 가지고 동아리 활동이나 학내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타인과 소통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비춰 정체성을 깨닫고 성장하면 좋지 않을까? 스펙만 중시하거나 대학의 낭만을 술에서 찾는다면 대학생활은 공허하고 피폐해질 것이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한 경험은 추억이 되어 삶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해 줄 것이다.

기고

우리는 고발한다

- 수의과대학 신축건물 착공 절차의 부당성에 관하여



김치완
철학과 교수

었고, 같은 해 12월에 발간된 ‘제주대학교 종합발전계획2010~시설부문’에는 인문대학 2호관 남쪽 부지가 수의대학 신축건물이 들어설 공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후 공간조정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로 지목된 인문대학과 수의과대학, 그리고 대학본부가 2010년부터 위 신축 부지를 두고 협의하는 과정에 인문대학 책임자들은 학내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수의과대학과

러나 당시 이미 착공이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여 동물병원의 신축에 동의하면서 더 이상 수의학과 부속건물을 짓지 않는다는 등의 3개항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는 수의학과 강의동 건물이 신축되었고, 같은 해 12월에 발간된 ‘제주대학교 종합발전계획2010~시설부문’에는 인문대학 2호관 남쪽 부지가 수의대학 신축건물이 들어설 공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후 공간조정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로 지목된 인문대학과 수의과대학, 그리고 대학본부가 2010년부터 위 신축 부지를 두고 협의하는 과정에 인문대학 책임자들은 학내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수의과대학과

대학본부에서는 2004년의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1992년 8월 합의안이 파기되었다는 사실만 되풀이하였을 뿐, 해당 도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해당 도면에는 수의과대학의 부지가 현재 인문대학에서 제시한 건의안대로 학생 생활관 동쪽 끝선에서 동쪽으로, 동물병원 인접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11년 8월 23일 총장실에서 제시된 잠정합의안을 양대학의 구성원들에게 고지하여 의견을 수합하기로 하여 양 대학에서 각각 회의록과 건의안을 상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본부에서는 일방의 주장만을 옹인하여 이후 합의절차를 누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문대학에서 이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자, ‘합의절차를 누락한 점은 인정하나, 이미 설계도가 나왔으므로 협조를 요청한다’는 요지로 오히려 인문대학 구성원이 집단 이기주의에 따라 학내의 정당한 행정집행을 방해하는 듯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올 제주대학교 허향진 총장님. 여기에 이르러 총장님께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00년 전에 살았던 공자의 “과이불개 시위과(過而不改 是謂過矣)”, 곧 “허물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허물이다.”라는 말입니다.

저희 인문대학 구성원은 지난 3년간 총장님께서 우리 제주대학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음을 알기에 그동안 총장님의 대학운영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총장님 앞에서 합의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행정적 과오를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고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히 예밀 졸라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은 고언(格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강한 확신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실이 전진하고 있고 아무 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문학의 정신이고, 여기는 야합(野合)이 판치는 정치판이 아니라 진실의 전당인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대신문비평

1면 기사에 더욱 충실해야



현정대
제주저자고등학교 교사

인 등 한 사람의 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감이 오히려 더 컸던 시간이었다. 그런 고충을 알기 때문에 제주대신문의 원고 청탁에 담긴 절실함을 느낄 수 있었다.

캠퍼스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온 지 8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대학 생활을 회미하게 되었고 보면 다른 단과대학에서의 소식을 접할 길이 없었던 듯하다. 솔직히 말하면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컷소문으로만 접했던 것 같다. 학생회실, 학과 사무실을 통해서, 부끄럽게도 제주대학교 신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졸업을 했던 것이다. 그런 필자가 본 신문에 대해 말을 꺼낸다는 것이 쉽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느낌으로 읽은 소감을 용기 내어 말해보고자 한다.

신문을 처음 꺼내들었을 때 1면 기사에 있는 모집 광고 및 홍보 문구에 할당된 지면 넓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광고 효과가 가장 큰 지면이 1면이기에 충분히 홍보에 대한 의지가 보이는 편집 의도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1면 기사의 중요성을 아는 독자라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오히려 기사 확보에 대한 충실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 중요한 행사이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지만 1면 기사의 콘셉트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제주대신문의 현실을 들여다 볼 수도 있었다. 학부 생활을 하면서 강의 일정 속에서 취재 활동을 하기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활동 기자의 수가 극히 적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취재기사와 동정기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즉 취재기사라면 취재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떤 부분은 직접 사진 촬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제공자와 취재자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다.

취업 현장에 제시할 중요한 포트폴리오 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재자 본인의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은 기사에 대한 자신감 부족 또는 준비의 소홀함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신문과 독자, 독자와 독자 간의 의사소통을 활용할 수 있는 기고란 또는 지면 계획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이슈 또는 사건을 담아 취재 기간 동안 캠퍼스 내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소소히 알 기회를 제공한다면, 독자들이 더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기사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는 기자들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 발전하는 ‘제주대신문’이 되기를 바란다.

독자기고

말끔하게 정리하니 머릿 속이 시원



김민영
간호학과 1

아 놓은 책들. 화장대에는 늦어도 얼굴에 뭔가 찍어 바르기 위한 조금함으로 온갖 화장품이 뒤섞여 있었다.

‘나오는데 문제가 없으면 들어가는데도 문제가 없다’며 누군가는 집실 정리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이런 좀 심했다 싶었다. 아빠가 “여기 지퍼백만 막상 청소를 하라 하자 정말 발 디딜 곳이 없었다. 우선 방바닥에 널부러진 것들을 다 침대위로 올려놓고 입었던 옷과 안 입었던 옷을 구분했다. 입었던 옷은 다 빨래바구니에 넣고 안 입었던 옷은 곁에 개서 옷장에 넣는데 옷장이 이미 꽉 차 있었다. 옷장이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닌데 옷이 꽉 차 있다. ‘옷이 이렇게 많은데도 난 왜 매일 입을 옷이 없는 거야?’ 어찌구무가 없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하는 생각에 옷장의 옷들도 죄다 꺼내 분류를 시작했다. 최근 1년 안에 입지 않았던 옷은 앞으로도 안 입을 옷이라 생각해 박스를 따로 꺼내 그 곳에 담았다. 그러자 꽉 차 있던 옷장의 반이 텅텅 비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샀던 것이 결국엔 안 입게 되어 버리

게 되니 아까웠다. 새삼 ‘그저 사고 싶으면 사고 나’ 싶어 내 소비 습관이 부끄러웠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옷 정리를 끝내고 책상 정리를 시작했다. 뭘 그리 쌓아뒀는지 강의 책, 잡지, 다이어리, 스케치북 등으로 책상의 한 귀퉁이도 보이지 않았다. 펜꽂이도 쓰러져 연결필터 불펜이며 죄다 쏟아져 몇 개는 책상 아래에서 굴러다니고 있었다. 펜을 하나 하나 꺼내 담아 정리하고, 책들도 책장 안에 넣었다. 왜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고등학교 때 성적표들도 밑에 깔려 있었다. 심지어 친구에게 쓰다만 생일편지도 있었다.

책상을 깨끗이 정리한 뒤 그 앞에 앉자 개강 날에도 못 느꼈던 공부열이 생기는 것 같았다. 책상의 모습이 그 사람의 머릿속이라더니 이제야 내 머리가 맑아진 기분이 들었다. 쓰러진 화장품들을 정리해 화장대까지 말끔히 정리하자 내 방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일단 방을 치웠다는 뿌듯함과 청소된 방에서 느껴지는 청결함에 기분이 좋아졌다. 게다가 정리를 하면서 그 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도 찾았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발견해서 재밌었다. 이번 방청소는 청소가 아니라 보물찾기를 하는 것 같았다. 덕분에 옷장에 박아뒀지만 지금 입으면 편함을 옷들도 발견했고, 굳이 필기구를 안 사도 된다는 걸 알았다. 책상 서랍에 있던 친구들이 준 편지들도 지금 읽으니 재밌었다.

등문칼럼

‘1만시간의 법칙’을 아시나요



김상철
법학과 88학번

제주지방우정청 근무

신경과학자 다니엘 헤빈터의 연구 결과 ‘일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분야건 전문가가 되려면 일 만시간 이상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하루 3시간, 일주일 약 200시간씩 10년을 쏟아 부으면, 매일매일 투자하게 된다면 10년째 되는 날은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990년대 발표한 안데르스 에릭스의 ‘재능은쟁의 사례A’ 연구결과가 흥미롭습니다. 그는 바이올린을 배우는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1) 장래에 세계적인 솔로주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 그룹 2) 그냥 ‘잘한다’ 평가를 받는 학생들 그룹 3) 공립학교 음악교사가 꿈인 학생들 그룹.

5세부터 20세까지 연습한 연습량을 보니, 1) 그룹 1만시간 2) 그룹 8000시간 3) 그룹 4000시간이었습니다.

노력이 필요 없는 ‘타고난 천재는 없다’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하지만 아직 정상에 오르지 못한 학생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가 결론입니다. 뛰어난 실력은 연습량이었습니다. 물론 일 만시간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Do what you love)’ 첫째, 먼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일 만시간이 넘도록 꾸준히 연습해야 하고 셋째, 결과 대신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제주출신 양용은 선수는 골프클럽을 잡으면 세상이 내 것인 양 힘이 났고, 공을 멀리 날려보낼 때는 자신이 하늘을 나는 듯 했다고 합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성공만을 바라고 골프선수가 되는 것을 말리고 싶다. 골프를 즐기고 좋아하며 최선을 다 할 각오가 있다면 권하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용솟음치고 있는 내면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밤새워 부쉬도 질리지 않는 열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인생은 취미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좋아하는 것과 가능성의 조화입니다.

<미래소년 코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웃집 토토로> 등 일본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가 거장으로 발돋움하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는 자신이 만화를 진정으로 좋아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부친의 권유로 정치외교학부에 백하게 되었지만, 가슴에는 만화의 꿈을 늘 간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졸업후, 토에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에 입사를 하였는데 주된한 스토리에 맞춰 비슷한 그림을 그리는 일도 그려야 했지만, 미야자키 하야오는 같은 그림이라도 조금씩 다르게 그려보며 밤새웠다고 합니다. 토에이에서 단순노동에 가까운 지루한 작업을 하면서도 지칠 줄 모르고 골몰할 수 있었던 10년이라는 시간은 하야오를 최고의 감독으로 만든 것입니다.

나의 토에이는 어디일까요?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다고요? 부지런히 찾으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휩쓸리거나 현혹되지 않고, 나의 가치관을 찾고 나의 기준을 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목표를 정하고 하나하나 조그마한 성공들이 쌓이면서 진정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일을 반복하고 즐기라고 사랑하십시오. 일 만시간의 연습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돌아르방

대학 여건에 맞는 평가기준 제시를

지난해 9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5개 국립대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자체 구조 개혁안을 교과부에 제출하고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해야 했다. 또 구조 개혁 내용에는 총장 공모제 도입, 교육대학 특성화, 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 학생 정원 조정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올해에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을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립대학 2단계 선진화 방안’ 중 가장 중점적으로 내건 총장직선제를 모든 국립대가 폐지시키지 선정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총장직선제 개선 여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지표로 들어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총장직선제를 유지하겠다는 대학들도 하나둘씩 총장직선제를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이처럼 교과부는 총장직선제 폐지 등 자신들이 내놓은 정책에 맞게 대학을 움직이도록 압박을 가했다. 기자는 총장 직선제 폐지 등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 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에 넘쳐나도록 많은 대학들을 독창성과 특성화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들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다. 연구를 잘하는 대학이 있는가 반면, 교육을 잘 가르치는 대학도 존재한다. 더불어 취업사관학교로 불리는 대학도 있다. 또한 교과부에서는 눈엣가시였던 총장직선제를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시켰던 대학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교과부는 대학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았다. 단순히 보이는 지표로만 평가하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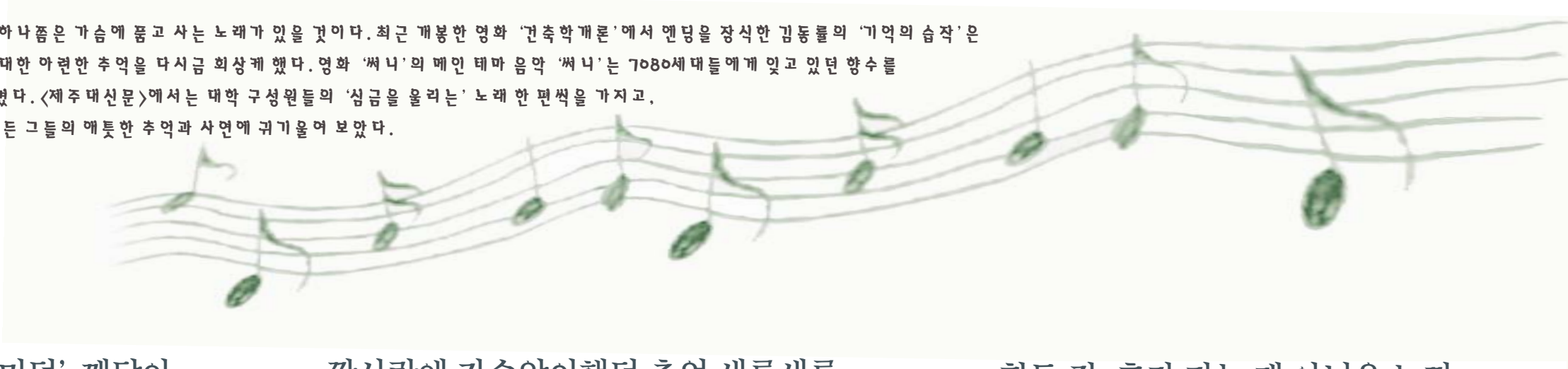
교과부는 대학 지원사업이나 부실대학을 선정할 때 수치로 정확히 나오거나 시행여부 등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지표로 쓰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로 모든 대학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했기에 공평하다는 생각에 의해서다. 이는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교과부가 대학을 평가하려 한다면 일괄적인 기준이 아닌 대학 상황에 맞는 심도 있고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대학을 평가할 때마다 언론 또는 대학에서 평가결과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각 대학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대다수의 대학이 수긍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김동현 여론사회부장

심금을 울리는 그 노래

누구나 하나쯤은 가슴에 품고 사는 노래가 있을 것이다. 최근 개봉한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엔딩을 장식한 김동률의 '기억의 습작'은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다시금 회상케 했다. 영화 '써니'의 메인 테마 음악 '써니'는 7080세대들에게 밋고 있던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제주대신문>에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 한 편씩을 가지고, 그 안에 깃든 그들의 애틋한 추억과 사연에 귀기울여 보았다.



음악 통해 '나이 들의 미덕' 깨달아

작사사랑에 가슴앓이했던 추억 새록새록

힘든 길, 혼자 가는 게 아님을 느껴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
「실렌치오」

고호성(법학과) 교수에게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실렌치오(Silencio, 조용히 하라는 뜻)'가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

“나이가 드는 것은 쓸쓸한 일입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도 꽃다운 젊은 시절이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성공과 좌절도 있었고, 이제 나이가 들며 쓸쓸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부모님을 나와 같은 하나의 인생, 하나의 삶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쓸쓸한 감정이 반드시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고 교수는 이 노래를 통해 깨달았다고 한다. “슬프고도 아름답라. 인생이 어”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슬픈 것마저 아름답게 느낄 수 있다면, 사람들

내 뒤편에는 꽃들이 잠들어 있네
글라디올라스와 장미와 흰 백합
그리고 깊은 슬픔에 잠긴 내 영혼
난 꽃들에게 내 아픔을 숨기고 싶네
...

깨우지 마라 모두 잠들었네
글라디올라스와 흰 백합
내 슬픔을 꽃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내 눈물을 보면 죽어버릴 테니까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 「실렌치오」 중

의 모든 삶은 나름대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이 노래는 쿠바혁명으로 사교클럽에서의 음악생활이 중단된 후, 밀바닥에서 어렵게 생활하다 40여년이 지나 늙은 몸으로 다시 옛 동료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가사는 한없이 아름답고, 노래를 부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매는 참으로 그윽하더군요.”

그는 어느 날 야간 수업을 끝내고 피곤한 심정으로 무심코 TV를 틀었을 때 이 노래를 접하게 됐다고 한다. 그때 느꼈던 충격과 감동은 헤아릴 수가 없었다.

“노래도 초월할 수가 있구나, 생각했지요. 제가 느낀 감동을 전해주고 싶어, 지금 이 노래를 옛 친구들과 나누고 있어요. 페이스북북을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델리 스파이스
「고백」

한혜원(26·국어국문학과 조교)씨와 고경하(26·철학과 조교)씨는 고등학교 동창이다. 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을 들으며, 서로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친목을 쌓았다.

“그때 둘 다 짝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노래를 들으며 함께 애달아하고, 위안을 얻기도 했죠.”

애꿎은 짝사랑은 사춘기 시절 작지 않은 공간을 차지했다. 둘은 항상 함께 다니며 그에 대한 회노에락을 함께 나눴다.

“우리의 추억을 생각할 때면, 자연히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아찌 보면 저희를 연결해 준 끈이기도 하잖아요.”

작사사랑은 결과적으로, 둘 다 잘 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에 대한 아쉬움은 없다. 단단. 사랑보다 더 값진 우정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때의 연애감

중2 때까진 늘 첫째 줄에
겨우 160이 됐을 무렵
솔직한 녀석들은 모두 다
이미 첫사랑 진행 중
...

널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상처 입은 날들이 더 많아
모두가 즐거운 한 때에도
나는 늘 그곳에 없어

-델리 스파이스, 「고백」 중

정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다 추억의 일부 분인 것 같아요. 연애감정보다 지금 더 기억에 남는 건, 그 감정을 교환하며 조잘조잘 얘기를 나누던 그 시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최근 방영되며 화제를 모은 드라마 '응답하라 1997'에 이 노래가 OST로 삽입되면서 다시금 잊혀졌던 이 노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오랜만에 '고백'을 듣더니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해요. 그 시절부터 이어진 우리들의 우정은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입니다.”



고경하(좌)씨, 한혜원(우)씨



루시드 폴
「국경의 밤」

향보회원(국어교육과 2)씨는 루시드 폴의 '국경의 밤'을 들을 때면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의 추억이 떠오른다고 한다.

“고3 시절 저는 의무적으로 12시 야간 자율학습을 했어요. 물론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졸음을 참기 위해 CDP를 챙겨가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곤 했는데, 그때 들었던 노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가 '국경의 밤'이에요.”

12시 야자가 끝나면 학생들은 다들 셔틀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조잘대는 소리로 가득하던 버스 안의 분위기는 우울하게 바뀌었다. 어떤 학생은 영어단어를 외우기 위해 버스 안에서도 필사적이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진 학생도 있었다.

회원씨는 이 노래를 들을 때면 그 당시 집으로 돌아가던 버스 안 풍경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려진다고 했다.

“아, 다들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맑은 못해도 서로 다 힘을

너를 떠나기 전에 고향 떠나기 전에
독서실 문틈 사이로 밀어넣은 네 결심
바라보는 것만큼 어쩔 수 없던 우리
다같이 무기력했던 우리 고3의 바다
...

앞으로 돌진하는 내 현실
전투하듯 우리 사는 동안에도
조금도 바꾸지 못한 네 얼굴

-루시드 폴, 「국경의 밤」 중

든 상황이었어요. 모두 같이 가는 길임, 혼자 가는 길이 아픔을 느끼면서, 저도 모르는 새 마음의 위안을 얻었죠.”

그래서인지 이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그는 고3이라는 실타래로 연결된 공동의 기억을 더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그때의 우리들은 속상해하는 코드도, 위로받는 코드도 비슷했어요. 저에게 이 노래는 고3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떠오르는 그 공동의 기억 자체와 같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힘들었던 기억만 있던 것은 아닌 그때 그 시절. 서로 같은 감정을 공유하며 보내온 고3 시절을, 회원씨의 CDP 속 '국경의 밤'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김소영 기자



향보회원 씨

영화평 '피에타'

비참한 현실 속의 방황하는 인간 존재

인간은 어디까지 약해질 수 있고, 또 어디까지 선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또는 선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최근 베니스 영화제에서 4관왕을 차지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김기덕 감독의 18번째 작품 <피에타>. 감상하고 난 뒤에 한없이 짙고 끈적하게 느껴진다. 무엇인가 쓴 어운이 계속해서 뇌리에 남았다. 영화 <피에타>는 지극히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찢는 인간애, 그리고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와 맞물렸을 때 생겨나는 비극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아로 30년을 살아온 강도(이정진 역)는 채무자의 돈을 무자비한 방법으로 갈취하고 다니며 삶을 연명한다. 그에게는 일말의 동정심도 자비도 없다. 그저 월급과 10배로 불린 이자를 받아내지 못하면, 손이라도 하나 잘라가면 되는 것이다. 그런 그의 모습은, 인간성이 완전히 상실돼 버린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반영한다.

조금의 희망도 구원도 찾아볼 수 없었던 강도의 환경 속에서, 놀랍게도 약인 그 자체였던 강도에게서 변화가 일었다. 30년 만에 나타난 엄마를 만나면서부터 인간애를 회복해 가기 시작한 것이다. “너도 엄마가 있을 것 아니냐”라는 한에 섞인 채무자의 외침에도 못방귀 한 번 끼고 말던 그가, 엄마를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까지도 마다치 않게 됐다. 어둠기만 한 사회 속에서 강도와 엄마 둘은 서로를 만나 서로를 통해 구원받고, 인간성을 되



영화 <피에타>에 등장하는 두 모자. '엄마' 역의 조민수(좌), '강도' 역의 이정진(우).

찾았다. 그 과정이 너무나 처절하고 서글펐다. 둘은 빛났지만, 그럼에도 세상은 여전히 끝도 없이 어두웠기에.

극중 강도가 엄마(조민수 역)에게 묻던 장면이 있다. “돈이 뭐냐”고. 엄마는 대답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지.” 인간 사회의 시작과 끝이 인간이 아닌 ‘돈’. 자본주의 사회의 불편한 진실 날날이 고발

그 안에서 발하는 인간애 통해 속죄와 구원

여져. 그란 눈을 돌리고만 싶고 외면하고 싶다. 그러나 실은 그런 삶도 있는 것이다. 빛을 다 갚지 못해 죽으러 가는 아저씨가 남긴 마지막 말 “죽음이 뭐야?”처럼, 삶과 죽음이 크게 다르지 않은, 아니 사느니 죽는 게 더 낫 법한 삶도 있는 것이다.

그 안에서도 약삭같이 인간애를 간직하려는 이들의 모습은 그래서 더 애처로웠다.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자기 손으로 자신의 팔뚝을 잘라야만 하는 어린 가장의 모습. 한심하기만 한 남편인데도 끝까지 그를 버리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어느 아내의 모습. 놀이공원 에서 어린 아이마냥 순수하게 웃던 강도와 그런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짓던 엄마의 모습까지도.

영화 말미, 끝없이 이어지는 붉은 새벽 길은 우리 사회에서 상처받는 이들의 끝까지 않을 고통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김소영 기자



네 안의 열정을 깨워라!

기간 2012년 8월 28일 ▶ 11월 27일
홈페이지 www.jejusori.net
페이스북 facebook.com/JDCAcademy
블로그 blog.naver.com/JDCAcademy
문의 064) 754-2307(제주대학교 취업전략본부)





강의 일정	
8월 28일 국제교류회관 왕원환 제주도민회장 김민석의 시대정신과 Global 제주인	9월 4일 국제교류회관 김정현 향토소장연구회 이사 변화는 나 자신이다
9월 11일 국제교류회관 김수영 평론가 Life is []	9월 18일 국제교류회관 한동현 아이디어메이크 대표 한년 71억가 장신
9월 25일 국제교류회관 고 산 이현의 후원 도전, 눈부신 시작	10월 2일 국제교류회관 김종현 NMC 사장이자 본부장 향토! 향토!는 향토의 미래를 향하라!
10월 9일 국제교류회관 한영수 SK하이닉스 이사 우리 안에 잠겨있는 향토정신	10월 23일 국제교류회관 최일규 MBC 평론가 최지 아저씨! 별 할을 같이 하라
10월 30일 국제교류회관 김남훈 평론가 향토, 가슴 뛰는 삶을 살아	11월 6일 국제교류회관 이근철 평론가 글로벌 인재되기 - 평생, 도전, 실패, 깨달음!
11월 13일 국제교류회관 김수종 평론가 눈은 하늘을 보고, 발은 땅을 밟아라	11월 20일 국제교류회관 엄용훈 평론가 평생을 향토에 바치라 - 향토정신, 다양한 향토, 향토의 서로!
11월 27일 국제교류회관 이종범 평론가 바람의 아들, 인생로 돌아오라	





문화 단신

문화조형디자인전공 졸업전 27일까지 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22회 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디자인전공 졸업전이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제주시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졸업전은 문화조형디자인전공 학생들의 작품 34여점이 전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디자인전공(754-3690)에 문의하면 된다.

제주도립합창단 정기연주회 27일 저녁 제주아트센터

제78회 제주도립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사랑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한다.

입장료는 일반 5000원, 청소년 3000원, 단체 4000원이며, 예매 및 자세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예술단(728-3292~4)으로 하면 된다.

김소영 기자